기본연구 2015-16

# 제주지역 대중국 주요 수출산업 분석 및 대응방안

**이중화 · 신금미**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 발 간 사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3년 만인 2015년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은 분명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대될 그 중요성이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발효 전후로 나누어 제주지역과 중국의 무역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발전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02-2014년 기간 HS CODE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경쟁력 품목 및 산업내무역 수준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 후를 대비하여 한중 양허표에 근거하여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였습니다.

한중 FTA 발효에 앞서 진행된 본 연구가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도출하고,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국 수출전략수립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 연구요약

### Ⅰ. 연구 개요

○ 한중 FTA의 연내발효가 전망됨에 따라, 한중 무역구조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시장 환경은 보이지 않는 기회와 위협을 동반하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산업별·지역별·시기별로 상이하기에 선제적인 탐색과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는 2002년 40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572만 5천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 25.20%로 전국 17개 시·도별 가운데 2위 증가세를 보임

- 대중국 수입규모는 2002년 1,535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4,476만 5천 달러로 수출규모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동기간 중 최소 2008년 1,135만 달러에서 최대 2014년 3,904만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를 보임

○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중 FTA발효 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HS 단위별 세부품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Ⅱ.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 현황 분석

○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는 국내 기타지역 대비 극히 낮은 규모를 보이지만, 2002-2014년 기간 대중국 수출 증가세와 의존도는 매우 높음

- 그러나 수출 증가세가 큰 변동성을 보여 불안정적인 증가임을 알 수 있음

○ 동기간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규모와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전국 평균 수준 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수출보다 안정적인 증가를 보임

○ 제주지역과 중국 간 수출입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002년 39개에서 2014년 68개로 교역재가 다양화되었으며, 수입의 다양성이 수출보다 더욱 높음

- 게다가 HS 2단위 품목 기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자교역 역시 2002년 6개에서 2014년 23개 품목으로 약 3.8배 증가하여,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수준이 심화됨을 나타냄

○ 2002-2014년 제주지역은 중국과의 교역 중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함

- ARIMA모형을 통한 시계열 분석 결과 역시 향후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동시에, 무역적자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Ⅲ.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품 중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46개로, 중국의 대제주지역 488개 무역경쟁력 수출품과 비교하여 매우 작은 규모를 보임

- 2009-2015년 기간 “광수와 탄산수, 기타 과자류, 감귤류과실, 기타 음료” 품목은 지속적으로 대중국 수출의 비교우위를 보임
- 품목별 비교우위 수준은 대중국 무역수지와 유의미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제주지역은 대중국 수출 품목별 비교우위수준 향상이 필요함

○ 2002-2015년 중국의 대제주지역 1,356개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을 상위 분류기준인 HS 2단위로 구분하면,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95), 의류와 그 부속품(HS 62) 등을 들 수 있음

- 한중 FTA 발효 후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각종 조제식품” 품목들은 비교적 선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고려됨

○ 2002-2015년 기간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됨

- 제주지역은 고품질 수출과 저품질 수입 유형의 산업내무역을 발전시켜 향후 중국시장에서 경쟁수준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 Ⅳ. 한중 FTA의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기회와 위협 분석

○ 한중 FTA 양허표의 품목별 양허유형을 고려하여, 수출품과

무역경쟁력 품목의 대중국 수출확대 기회가 있는 품목을 제시함

- 수출품 측면에서 “기타조제식품, 부분품” 수출규모는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며, 인삼과 기타식물성수액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 수출 증가의 기회가 보임
- 무역경쟁력 측면에서 “기타냉동어류, 기타음료, 식용, 인삼, 기타조제식품, 광수탄산수, 약용 화장용품” 등 품목의 수출확대가 전망됨

○ 한중 FTA 발효 후 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품목 기준 무관세로 전환되는 637개 HS 10 단위 품목 중 549개(77.7%)가 일반품목에 분류되어, 단기간에 대중국 수입규모 확대가 전망됨

- 549개 품목 중 즉시 관세철폐의 158개 유관세 품목은 2014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모두 무역적자를 보이는 품목으로 이들 제품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58개 즉시 관세철폐 품목 중 기준세율이 8%인 품목이 113개로 가장 많고, 관세 인하폭이 가장 큰 품목의 기준세율은 13%로 12개 품목이 해당됨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의 한중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국 수출촉진 T/F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수출촉진 T/F는 우선 한중 FTA 협정 중 제주지역 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함
- 둘째, 제주지역과 중국 간 HS 단위별 수출입 품목의 데이터 분석으로 대중국 수출확대의 장·단기적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셋째,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제주지역 기업현황을 조사하여 대·내외적 기회를 분석해야 함

○ T/F의 연구는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산 품목의 무역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 목 차


Ⅰ. 연구 개요 ····· 1
1. 배경 및 필요성 ····· 1
2. 목적 및 분석방법 ····· 2
3. 선행연구와 차별성 ····· 4

Ⅱ.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 현황 분석 ····· 5
1.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현황 ····· 5
2.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현황 ····· 9
3. 제주지역 대중국 HS 2단위 품목 교역현황 분석 ····· 13
4.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수지와 주요 흑자·적자 품목 분석 ····· 16
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규모 전망 ····· 21

Ⅲ.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24
1. 무역경쟁력 분석 방법 ····· 24
1) 시장비교우위지수(MCAI: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24
2) 산업내무역지수(IITI: Intra Industry Trade Index) ····· 25
2. HS 6단위 품목별 교역 빈도 분석 ····· 27
3. HS 6단위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29
1) 제주지역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 29
2) 중국의 대제주지역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 33
3)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 35

Ⅳ. 한중 FTA의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기회와 위협 분석 ····· 38
1. 한중 FTA 주요 내용 ····· 38
2. 한중 FTA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분석 ····· 41
1) 중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품목 ····· 41
2) 중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 ····· 46
3. 한중 FTA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유망품목 분석 ····· 48

1) 한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품목 ····· 48
2) 한국양허표와 중국 무역경쟁력 품목 ····· 54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57
1. 요약 ····· 57
2. 정책제언 ····· 60
1) 한중 FTA 기회 활용 ····· 60
2) 무역경쟁력 제고 ····· 61
3) 기업 교육 및 홍보 ····· 61
4) 공정한 지원제도 구축 ····· 62
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촉진 T/F 활성화 ····· 62

참고문헌 ····· 64
Abstract ····· 65
부록 ····· 67

# <표 차례>


<표 Ⅱ-1> 전국 시·도별 대중국 수출규모 비중 ····· 5
<표 Ⅱ-2> 시·도별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 ····· 6
<표 Ⅱ-3> 전국 시·도별 대중국 수입규모 비중 ····· 10
<표 Ⅱ-4> 시·도별 대중국 수입 연평균 증가율 ····· 11
<표 Ⅱ-5>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 유형별 HS 2단위 품목수 ····· 14
<표 Ⅱ-6> 양자교역 HS 2단위 품목 분류 ····· 15
<표 Ⅱ-7> 제주지역과 중국 간 양자교역 품목별 빈도분석 ····· 16
<표 Ⅱ-8>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흑자 HS 2단위 품목 ····· 17
<표 Ⅱ-9> 연도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적자규모 1위 품목 ····· 20

<표 Ⅲ-1>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분류 ····· 26
<표 Ⅲ-2>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 유형별 HS 6단위 품목수 ····· 27
<표 Ⅲ-3> 제주지역 HS 6단위 대중국 무역경쟁력 품목수 ····· 29
<표 Ⅲ-4>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경쟁력 상위 10개 품목과 시장비교우위지수 · 30
<표 Ⅲ-5> 전·후반 시장비교우위지수 평균값 비교 ····· 31
<표 Ⅲ-6> 2013-2015년 제주지역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 비교 ····· 32
<표 Ⅲ-7> 중국의 대제주지역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수 ····· 33
<표 Ⅲ-8> 중국의 대제주지역 무역경쟁력 10개 상위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 · 34
<표 Ⅲ-9>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와 대중국 무역수지의 관계 ····· 35
<표 Ⅲ-10> 연도별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고·저품질 수출입 유형 ····· 36
<표 Ⅲ-11> 수평적·수직적 산업내무역 품목 빈도 분석 ····· 37

<표 Ⅳ-1> 한중 FTA 양허유형 분류 ····· 39
<표 Ⅳ-2> 한중 FTA 비선형 관세인하 품목 ····· 40
<표 Ⅳ-3>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 ····· 41
<표 Ⅳ-4> 한중 FTA 발효 시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유형분류 ··· 42
<표 Ⅳ-5> 일반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8단위 품목수 ····· 43
<표 Ⅳ-6> 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8단위 품목수 ····· 44

〈표 Ⅳ-7〉 초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8단위 품목수 ····· 45
〈표 Ⅳ-8〉 HS 8단위 중국양허품목의 HS 6단위 품목 구성 ····· 46
〈표 Ⅳ-9〉 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의 HS 8단위 중국양허품목 유형분류 ···· 47
〈표 Ⅳ-10〉 한중 FTA 발효 시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유망품목 유형분류 ···· 49
〈표 Ⅳ-11〉 일반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10단위 품목수 ····· 50
〈표 Ⅳ-12〉 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10단위 품목수 ····· 50
〈표 Ⅳ-13〉 초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10단위 품목수 ····· 51
〈표 Ⅳ-14〉 HS 10단위 대중국 수입품의 HS 2단위 품목 구성 빈도 ····· 52
〈표 Ⅳ-15〉 3개 품목유형 비중별 HS 2단위 품목의 선후 영향 분류 ····· 53
〈표 Ⅳ-16〉 중국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의 한국양허표 품목유형 분류 ····· 54
〈표 Ⅳ-17〉 대중국 수입규모 증가 상위 10개 예상 품목 ····· 55

〈표 Ⅴ-1〉 무역경쟁력 품목과 중국양허표 HS 8단위 품목 ····· 59

〈부록 표-1〉 중국의 대제주지역 HS 2단위 수출품목별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수 ··· 67
〈부록 표-2〉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유망품목-Ⅰ ····· 69
〈부록 표-3〉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유망품목-Ⅱ ····· 71

# <그림 차례>

[그림 Ⅱ-1] 시·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의 변동성 비교 ····· 7
[그림 Ⅱ-2] 시·도별 대중국 수출 특징 ····· 9
[그림 Ⅱ-3] 시·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의 변동성 비교 ····· 11
[그림 Ⅱ-4] 시·도별 대중국 수입 특징 ····· 12
[그림 Ⅱ-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 ····· 16
[그림 Ⅱ-6] HS 2단위 품목별 무역적자규모 비교 ····· 19
[그림 Ⅱ-7] 2002-2014년 기간 주요 무역적자 품목 ····· 20
[그림 Ⅱ-8]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 전망 ····· 22
[그림 Ⅱ-9]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규모 전망 ····· 22
[그림 Ⅱ-10]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 전망 ····· 23

[그림 Ⅲ-1] HS 6단위 수출과 수입품목수 비교 ····· 28

[그림 Ⅴ-1]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촉진 T/F 활성화 구조도 ····· 63

# Ⅰ. 연구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되어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을 앞두고 있음

-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국 간 자유화 최종달성 후 한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 시 연간관세절감액은 54억 4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1)]

  · 또한 본 협정 중 우리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는 자유화로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힘

- 그러나 상술한 내용은 한국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며, 국내 특정 시·도별 측면에서 동일한 수출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중 FTA 발효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시장 환경은 보이지 않는 기회와 위협을 동반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산업별·지역별·시기별로 상이하여, 비록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지만, 선제적인 탐색과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제주지역 경제발전 중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오인하기 쉬움

  · 수출규모에서 볼 때, 제주지역은 2002-2014년 시·도별 대중국 총 수출규모 중 0.002% 연평균 비중을 보여, 기타 지역 대비 매우 작은 규모를 보임

- 그러나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2002년 40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572만 5천 달러로, 약 14.03배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25.20%로 17개 시·도별 가운데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기타지역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1) 산업통상자원부(2015.2)

매우 높아, 제주지역 경제발전 중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규모는 2002년 1,535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4,476만 5천 달러로 약 2.91배 증가함

· 수입규모가 수출보다 큰 원인으로, 제주지역의 소득증가와 중국산 상품의 다양성 제고를 들 수 있으며, 제주지역은 동기간 중국과의 교역 중 최소 2008년 1,135만 달러에서 최대 2014년 3,904만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를 보임

· 이러한 대중국 무역적자는 최근 제주지역 중국 관광객 증가[2]로 인한 수익이 다시 중국으로 재(再)유출됨을 의미함

- 대중국 수출입 규모와 증가속도, 교역재의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은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 목적 및 분석방법

○ 본 연구는 향후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발전을 위한 HS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와 한중 FTA 양허표를 기준으로 선제적인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향후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구조 변화의 영향을 세부 품목별로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발전 현황
- 둘째, 향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규모 전망
- 셋째,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경쟁력 품목
- 넷째, 중국의 대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
- 다섯 째, 양자 간 산업내무역 수준의 변화
- 여섯 째, 한중 FTA 체결 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 품목별 기대효과

2) 2015년 9월 기준 165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중 85.9%의 비중을 점함

○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의 세부분석을 진행함

- 첫째,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입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을 진단하고자 함

·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은 국내 기타지역 대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고 사료되어, 2002-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의 규모와 증가율 등 관련 지표를 국내 16개 시·도별 비교분석[3]을 진행함

· 또한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전망하기 위하여, ARIMA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수지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제주지역과 중국 간 HS 2단위, 6단위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주지역과 중국의 품목별 무역경쟁력 수준 측정과, 산업내 무역지수를 분석함

·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와 산업내무역 수준에 대한 분석은 제주지역과 중국이 상대측에 대한 무역경쟁력 수준이 가능하며, 교역수준 심화품목을 제시할 수 있음

· 게다가 산업내무역 분석 중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하여 "고품질 수출저품질 수입" 과 "저품질 수출고품질 수입" 두 유형의 분석 역시 가능함

- 셋째, 한국과 중국의 양허표[4] 중 양허유형 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 중 품목별 기회와 위협을 전망하고자 함

· 비록 한국은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로 한중 양국의 양허유형[5]을 제시하기 때문에, HS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와는 적합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6], HS 분류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와 매칭시켜 분석을 진행함

·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시, HS 6단위 수출입데이터, 중국의 대제주지역

3)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의 현황 분석은 절대적인 비교보다 상대적인 비교가 더욱 제주지역의 현황을 비교가능하게 제시한다고 사료되며, 세종시의 경우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2012-2015년 기간으로 여타지역 대비 단기간이므로, 이하 관련 주요 분석 중 포함하지 않음

4) 한국양허표는 12,232개 HS 10단위 품목, 중국은 8,194개 HS 8단위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한중 FTA 발효 시 품목별 수출입 규모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는 데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 사료됨

5) 양허유형은 한중 FTA 발효 시 과거 한중 간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변화유형을 나타냄

6)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HS 분류별 수출입 데이터는 2단위, 4단위, 6단위, 10단위로 구분되기에,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시 HS 10단위의 품목별 분류기준은 완전한 적합수준을 보이나,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시 중국양허표의 8단위 분류기준은 완전한 적합수준을 보이지 않음

수출 시 HS 10단위 수출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 또한 한국과 중국의 양허표에 2014년도 수출입 품목과 무역경쟁력 품목을 매칭시켜, 향후 FTA 발효 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 중 품목별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주요 품목을 제시함

## 3. 선행연구와 차별성

○ 김영귀(2015)는 한중 교역현황 하에 제주지역과 중국 간 주요 교역품목을 MTI 분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중 FTA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한계[7]를 고려해, 대한민국 전체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제주경제의 비중 고려 추산함

- 한중 FTA 발효 5년 후 제주지역 성장효과는 0.57%, 10년 후 1.5%에 달할 것을 전망함
- 교용효과는 발효 후 5년과 10년 각각 169명과 665명을 전망함
- 상품 수출입 효과를 한국과 중국의 양허표에 제주지역과 중국 간 수출입 데이터를 매칭시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함

○ 한석호(2015)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제주농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KASMO 농업부문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한중 FTA로 수입피해가 적다고 제시함

○ 이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의 제주지역에 대한 영향은 농업부문이 아니라, 2차 산업 등 상품 수입확대의 위협을 고려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분석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주지역과 중국 간 HS 2단위, 6단위, 10단위 품목별 분석을 진행하며, 양자 간 품목별 무역경쟁력 수준 및 한중 FTA 양허표의 양허유형을 고려한 수출과 수입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함

7) “GTAP database가 국가를 기본단위로 작성, 지역간 산업연관표 불가용” 등 이유를 제시함

# Ⅱ.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 현황 분석

## 1.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현황

○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2002년 40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572만 5천 달러[8]로 약 14.03배 증가함[9]

- 그러나 동기간 국내 17개 시·도별 대중국 총 수출액에서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0.002%로, 기타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규모를 보임(표 Ⅱ-1 참고)

〈표 Ⅱ-1〉 전국 시·도별 대중국 수출규모 비중

(단위: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평균 |
|---|---|---|---|---|---|---|---|---|---|---|---|---|---|---|
| 서울 | 16.153 | 11.388 | 9.181 | 7.880 | 7.428 | 7.329 | 8.091 | 10.041 | 12.391 | 12.848 | 13.290 | 12.295 | 12.286 | 10.815 |
| 강원 | 0.127 | 0.166 | 0.162 | 0.159 | 0.153 | 0.148 | 0.168 | 0.129 | 0.127 | 0.143 | 0.159 | 0.159 | 0.150 | 0.150 |
| 대전 | 0.642 | 0.567 | 0.560 | 0.497 | 0.558 | 0.421 | 0.528 | 0.657 | 0.684 | 0.595 | 0.680 | 0.613 | 0.707 | 0.593 |
| 충남 | 7.529 | 10.959 | 11.666 | 13.368 | 13.968 | 19.811 | 13.367 | 17.741 | 17.410 | 18.089 | 20.278 | 20.979 | 19.975 | 15.780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0.096 | 0.175 | 0.287 | 0.186 |
| 충북 | 2.552 | 2.311 | 1.859 | 1.756 | 2.088 | 2.354 | 2.393 | 2.345 | 2.311 | 2.700 | 3.047 | 3.096 | 3.061 | 2.452 |
| 인천 | 3.602 | 3.944 | 3.301 | 3.854 | 3.824 | 4.135 | 3.561 | 3.337 | 3.628 | 3.361 | 2.943 | 3.013 | 3.759 | 3.559 |
| 경기 | 22.498 | 20.773 | 20.896 | 23.554 | 25.158 | 20.429 | 18.903 | 21.638 | 25.421 | 19.925 | 19.736 | 22.313 | 26.072 | 22.101 |
| 광주 | 1.280 | 0.510 | 0.425 | 0.468 | 0.638 | 0.831 | 0.855 | 0.576 | 0.582 | 0.641 | 0.705 | 0.959 | 0.847 | 0.717 |
| 전남 | 7.463 | 8.544 | 8.461 | 8.705 | 8.491 | 8.469 | 9.388 | 8.757 | 8.417 | 8.925 | 8.258 | 8.125 | 6.770 | 8.367 |
| 전북 | 1.327 | 1.751 | 1.614 | 1.321 | 1.003 | 0.876 | 0.668 | 0.914 | 1.134 | 1.258 | 1.040 | 0.926 | 0.869 | 1.131 |
| 부산 | 3.030 | 2.576 | 2.203 | 2.015 | 1.869 | 1.807 | 1.770 | 1.725 | 1.819 | 2.066 | 1.726 | 1.674 | 1.786 | 2.005 |
| 경남 | 4.878 | 4.444 | 4.223 | 4.079 | 4.420 | 4.590 | 8.139 | 7.778 | 5.347 | 5.041 | 4.571 | 4.745 | 3.901 | 5.089 |
| 울산 | 13.326 | 13.059 | 14.810 | 13.057 | 14.477 | 13.520 | 14.749 | 11.739 | 10.852 | 13.649 | 11.798 | 9.868 | 8.434 | 12.564 |
| **제주** | **0.002** | **0.002** | **0.002** | **0.002** | **0.001** | **0.003** | **0.003** | **0.003** | **0.002** | **0.001** | **0.002** | **0.003** | **0.004** | **0.002** |
| 대구 | 1.515 | 1.379 | 1.410 | 1.351 | 1.141 | 1.037 | 1.059 | 1.090 | 1.107 | 1.106 | 1.130 | 1.115 | 1.188 | 1.202 |
| 경북 | 14.076 | 17.624 | 19.222 | 17.934 | 14.783 | 14.237 | 12.537 | 11.530 | 8.768 | 9.652 | 10.542 | 9.942 | 9.904 | 13.135 |
| 기타 | 0.000 | 0.003 | 0.005 | 0.000 | 0.001 | 0.004 | 3.822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295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세종시(市)의 경우 2012년 출범으로, 2012년부터 데이터 공표함

8)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4.

9) 중국의 대외무역은 2002년 WTO 가입 이후, 빠르게 발전하였음을 고려하여, 2002-2014년 기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그러나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24.62%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임(표 Ⅱ-2 참고)

- 제주지역은 충남지역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이 규모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작지만,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2〉 시·도별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구분 | 충남 | 제주 | 충북 | 강원 | 경기 | 대전 | 인천 | 전남 |
|---|---|---|---|---|---|---|---|---|
| 연평균 증가율 | 26.14 (1) | **24.62 (2)** | 18.06 (3) | 17.88 (4) | 17.73 (5) | 17.23 (6) | 16.70 (7) | 15.35 (8) |
| **구분** | **경남** | **대구** | **서울** | **경북** | **광주** | **전북** | **울산** | **부산** |
| 연평균 증가율 | 14.15 (9) | 13.96 (10) | 13.67 (11) | 12.93 (12) | 12.36 (13) | 12.26 (14) | 11.94 (15) | 11.28 (16)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세종시(市)의 경우 2012년 출범으로 이하 분석에서 제외함

- 특히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4.8%, 2012년 0.1%, 2013년 8.6%, 2014년 -0.4% 수준을 보임[10)]

- 특히, 지역별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의 표준점수가 충남(0.40), 제주(0.30) 지역만이 양의 값을 보이며, 이는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내 지역별 평균수준 보다 명확히 높음을 의미함[11)](식 1 참고)

· 기타지역 연평균 증가율의 표준점수는 충북(-0.10), 인천(-0.10), 강원(-0.11), 경기(-0.12), 대전(-0.15), 경남(-0.34), 대구(-0.35), 서울(-0.37), 경북(-0.42), 광주(-0.45), 전남(-0.45), 전북(-0.46), 울산(-0.48), 부산(-0.52)임

10) KOTRA(2015.2. p.1)

11) 식(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표준점수는 지역평균에 기준하여 표준편차의 몇 배 만큼 양(+)과 음(-)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기에, 지역별 수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z_i = \frac{x_i - \mu}{\sigma} \quad (1)$$

($z_i$ : 표준점수, $x_i$ : 연평균 증가율, $\mu$ : 평균, $\sigma$ : 표준편차, $i$ : 지역)

○ 비록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가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지만, 이점이 반드시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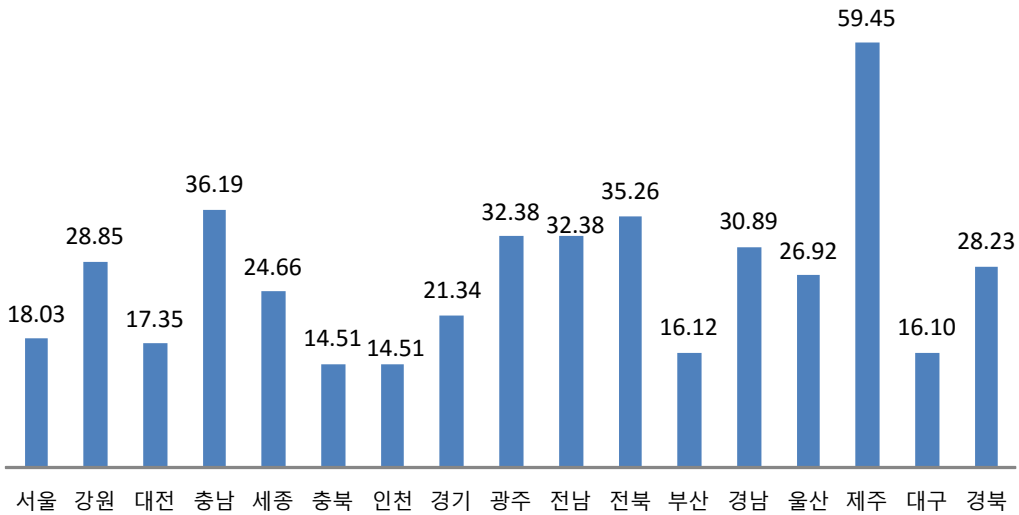
- 16개 시·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의 표준편차를 통하여, 기타지역 대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성장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분석기간 중 해당 지역 대중국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수출이 불안정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함

· 이에 따라 16개 시·도별 관련 표준편차의 표준점수는 지역별 대중국 수출 증가의 안정성에 대한 비교 및 판단이 가능함

○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증가는 기타지역 대비 매우 불안정적임

- 2002-2014년 기간 16개 시·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의 표준변차 범위는 **최저 14.51(충북, 인천)**에서 **최고 59.45(제주)**로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음(그림 Ⅱ-1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표준편차)

[그림 Ⅱ-1] 사·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의 변동성 비교

- 이로써 제주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은 품목별 비교우위수준의 변화, 다른 국가 상품의 제주산 상품 대체, 중국 내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자급률 제고[12] 및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즉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액이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 기타지역 대비 가장 불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제주산 품목의 대중국 수출증가의 주요 요인은 제주지역 자생적인 비교우위 수준향상 보다 중국 내 소비력 및 기호변화의 영향이 더욱 높다고 사료됨

○ 국내 기타지역 대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에 대한 특징을 표준점수 분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그림 Ⅱ-2 참고)

- 2002-2014년 기간 16개 시·도별 대중국 "연평균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표준편차" 각각의 표준점수와 수출의존도[13] 연평균 증가율을 활용함

- 첫째, 제주지역의 대중국 연평균 수출 증가율의 표준점수는 0.3으로 1사분면에 위치하여 충남지역과 함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여타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시·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표준편차의 표준점수에서 제주지역의 값이 가장 높은 변동수준을 보여, 기타지역 대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이 매우 불안정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냄

· 전년대비 대중국 수출 증가율 표준편차의 표준점수는 제주(2.90), 충남(0.84), 전북(0.76), 광주(0.51), 전남(0.51), 경남(0.37), 강원(0.19), 경북(0.14), 울산(0.02), 경기(-0.47), 서울(-0.76), 대전(-0.82), 부산(-0.93), 대구(-0.93), 충북(-1.07), 인천(-1.0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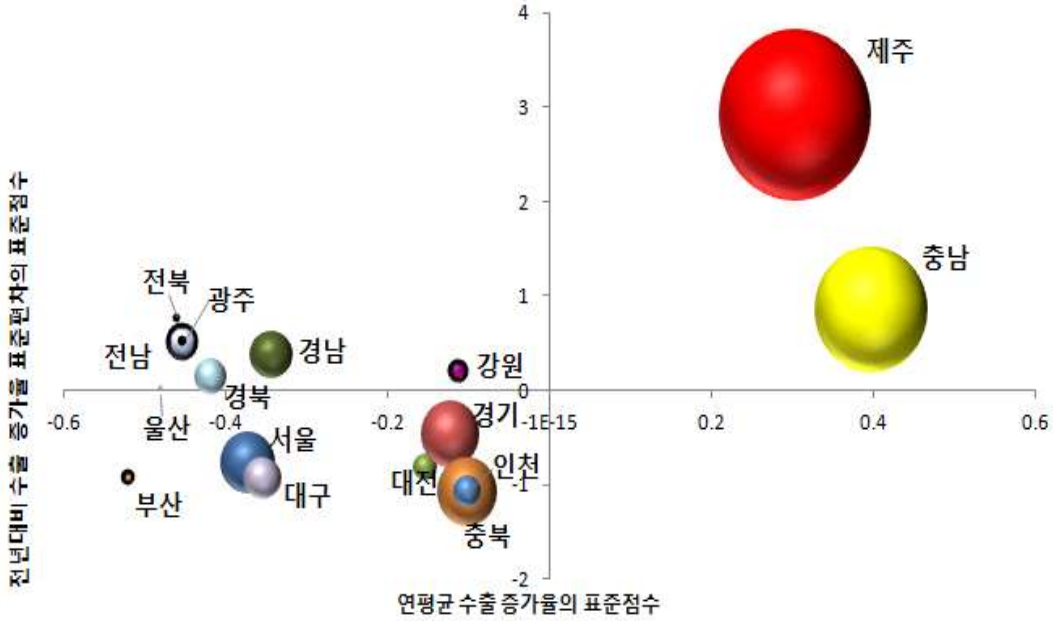
- 셋째,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의존도 연평균 증가율은 15.91%로 가장 높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 기타지역 대중국 수출의존도 연평균 증가율은 충남(11.70), 충북(6.28), 경기(6.07), 서울(5.63), 경남(4.30), 대구(3.84), 경북(3.25), 인천(2.77), 대전(2.39), 강원(2.16),

12) 천용찬 외(2015)에 따르면 중국의 총수입 중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4%에서 2014년 49.8%로 감소하였으며, 총 중간투입 중 중국산 중간투입 비중은 2004년 86.6%에서 2011년 90.1%로 상승함

13) $수출의존도_{it} = 수출규모_{it} / 총수출규모_{it}$, $(i : 지역, t : 연도)$

부산(1.43), 울산(0.10), 전북(-0.78), 광주(-0.91), 전남(-3.34)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1. 버블의 크기는 대중국 수출의존도 연평균 증가율 크기를 나타내며, 만약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 버블은 검정색 테두리로 제시함

2. 울산지역 대중국 수출의존도 연평균 증가율은 0.10%로, 버블크기를 식별할 수 없기에 0.40로 수정 후 제시함

[그림 Ⅱ-2] 시·도별 대중국 수출 특징

- 이상의 분석을 통해,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기타지역 대비 매우 작지만,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가장 불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증가는 기회임과 동시에 위험요소임을 나타냄

## 2.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현황

○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은 수출과 다른 추세를 보임

-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액은 2002년 1,535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4,476만 5천 달러로 약 2.91배 증가함[14)]

- 동기간 국내 17개 시·도별 대중국 총 수입액에서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0.048%로 매우 낮음(표 Ⅱ-3 참고)

·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제주지역 대중국 연평균 수출비중 0.002%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보임

· 하지만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 역시 수출과 동일하게, 기타지역 대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로,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함을 의미함

〈표 Ⅱ-3〉 전국 시·도별 대중국 수입규모 비중

(단위: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평균 |
|---|---|---|---|---|---|---|---|---|---|---|---|---|---|---|
| 서울 | 33.015 | 31.557 | 30.336 | 29.204 | 29.242 | 28.103 | 30.373 | 32.518 | 34.681 | 34.213 | 33.403 | 34.477 | 36.149 | 32.098 |
| 강원 | 0.359 | 0.361 | 0.459 | 0.368 | 0.312 | 0.344 | 0.390 | 0.299 | 0.358 | 0.419 | 0.350 | 0.357 | 0.338 | 0.363 |
| 대전 | 0.620 | 0.715 | 0.659 | 0.833 | 0.779 | 0.662 | 0.614 | 0.718 | 0.734 | 0.686 | 0.692 | 0.896 | 0.951 | 0.735 |
| 충남 | 5.272 | 5.070 | 4.619 | 5.191 | 5.480 | 5.929 | 4.014 | 3.503 | 3.095 | 3.351 | 3.175 | 3.313 | 3.116 | 4.241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0.088 | 0.457 | 0.390 | 0.312 |
| 충북 | 2.367 | 2.699 | 2.706 | 2.176 | 2.685 | 2.310 | 1.931 | 1.890 | 1.726 | 2.870 | 2.472 | 2.048 | 1.708 | 2.276 |
| 인천 | 5.231 | 5.971 | 6.445 | 6.310 | 5.735 | 5.761 | 5.632 | 5.359 | 5.324 | 5.621 | 6.139 | 6.505 | 6.678 | 5.901 |
| 경기 | 19.705 | 21.117 | 20.986 | 22.767 | 23.461 | 24.921 | 24.575 | 27.796 | 28.563 | 27.466 | 29.805 | 31.338 | 31.012 | 25.655 |
| 광주 | 0.688 | 0.691 | 0.910 | 0.891 | 0.889 | 0.956 | 0.795 | 0.830 | 0.871 | 0.618 | 0.603 | 0.576 | 0.631 | 0.765 |
| 전남 | 2.724 | 2.512 | 3.235 | 3.349 | 2.640 | 3.079 | 3.913 | 2.039 | 2.022 | 1.754 | 1.462 | 1.108 | 1.277 | 2.393 |
| 전북 | 2.003 | 2.054 | 1.400 | 1.491 | 1.139 | 1.113 | 1.013 | 0.994 | 1.066 | 1.207 | 1.005 | 1.170 | 1.146 | 1.293 |
| 부산 | 5.891 | 4.839 | 5.385 | 5.604 | 5.704 | 6.188 | 6.798 | 4.702 | 4.929 | 5.237 | 5.071 | 4.659 | 4.727 | 5.364 |
| 경남 | 8.619 | 7.990 | 8.043 | 7.726 | 7.899 | 7.793 | 10.562 | 10.940 | 9.068 | 8.142 | 7.853 | 5.428 | 4.625 | 8.053 |
| 울산 | 3.539 | 3.472 | 2.962 | 3.253 | 3.487 | 3.314 | 3.624 | 3.630 | 2.862 | 3.138 | 2.516 | 2.373 | 2.305 | 3.114 |
| **제주** | **0.088** | **0.110** | **0.052** | **0.053** | **0.052** | **0.032** | **0.019** | **0.030** | **0.033** | **0.031** | **0.040** | **0.035** | **0.050** | **0.048** |
| 대구 | 2.058 | 1.925 | 1.776 | 1.973 | 2.115 | 1.974 | 1.671 | 1.383 | 1.476 | 1.642 | 1.721 | 1.770 | 1.754 | 1.788 |
| 경북 | 7.821 | 8.912 | 10.007 | 8.811 | 8.353 | 7.445 | 3.982 | 3.367 | 3.191 | 3.605 | 3.605 | 3.489 | 3.141 | 5.825 |
| 기타 | 0.000 | 0.005 | 0.019 | 0.000 | 0.028 | 0.073 | 0.096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17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1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4.

○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액의 2002-20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9.32%로 전국 13위의 지위를 점함(표 Ⅱ-4 참고)

<표 Ⅱ-4> 16개 시·도별 대중국 수입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지역명 | 경기 | 대전 | 인천 | 서울 | 강원 | 광주 | 대구 | 부산 |
|---|---|---|---|---|---|---|---|---|
| 연평균 증가율 | 19.10 (1) | 18.85 (2) | 17.04 (3) | 15.56 (4) | 14.12 (5) | 13.86 (6) | 13.17 (7) | 12.60 (8) |
| **지역명** | **충북** | **울산** | **충남** | **전북** | **제주** | **경남** | **전남** | **경북** |
| 연평균 증가율 | 11.61 (9) | 10.66 (10) | 9.77 (11) | 9.47 (12) | **9.32 (13)** | 8.89 (14) | 7.67 (15) | 6.29 (16)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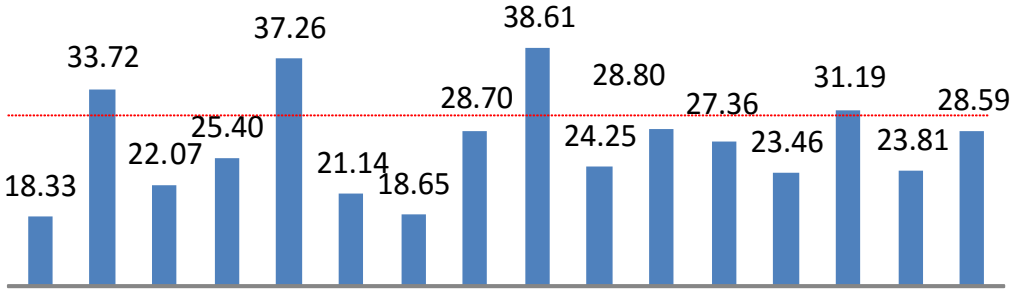
참고: 세종시(市)의 경우 2012년 출범으로 이하 분석에서 제외함(※p.6 <표 Ⅱ-2> 참고)

○ 수출과 달리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음

- 2002-2014년 16개 시·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표준편차 범위는 최저 18.32(서울)에서 최고 38.61(전남)임(그림 Ⅱ-3 참고)

- 제주지역의 대중국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31.19로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의 표준편차 59.45보다 낮은 수치로, 수출보다 수입의 변동수준이 낮음

· 전남, 충북(37.26), 강원(33.72) 3개 지역이 제주지역보다 높은 변동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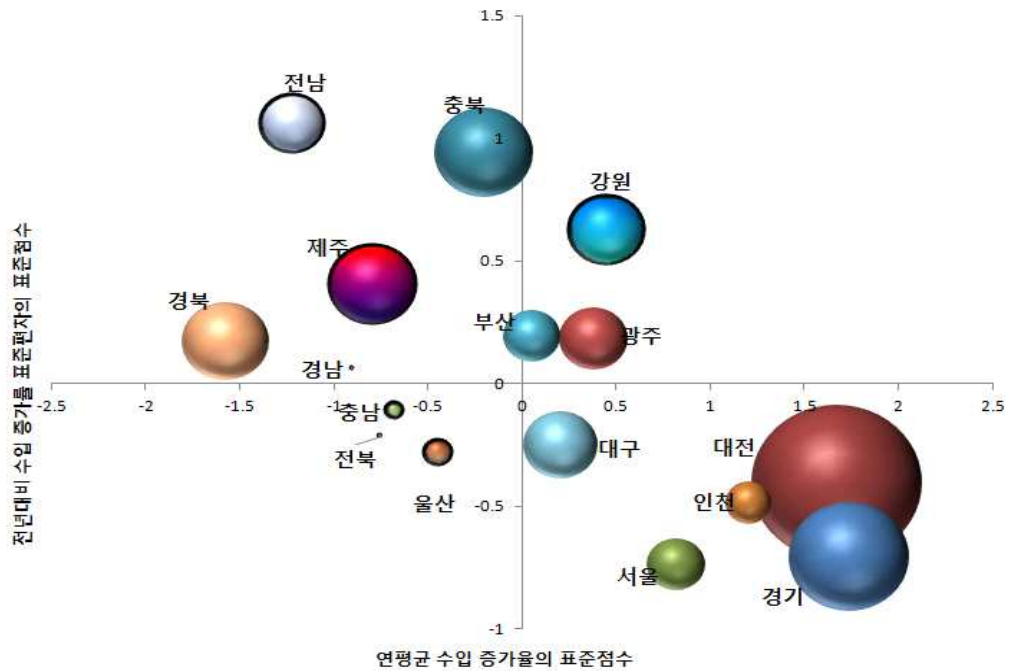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표준편차)

[그림 Ⅱ-3] 사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의 변동성 비교

- 이로써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수입이 수출보다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중국산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기타지역과 비교하여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Ⅱ-4 참고)

- 2002-2014년 기간 16개 시·도별 대중국 "연평균 수입증가율,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표준편차" 각각의 표준점수와 수입의존도[15] 연평균 증가율을 활용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1. 버블의 크기는 대중국 수입의존도 연평균 증가율 크기를 나타내며, 만약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 버블은 검정색 테두리로 제시함

2. 경남지역 대중국 수입의존도 연평균 증가율은 -0.006%로, 버블크기를 식별할 수 없기에 -0.30로 수정 후 제시함

[그림 Ⅱ-4] 시·도별 대중국 수입 특징

15) 수입의존도$_{it}$ = 수입규모$_{it}$/총수입규모$_{it}$, ($i$ : 지역, $t$ : 연도)

- 첫째, 제주지역의 대중국 연평균 수입 증가율 표준점수는 -0.79 수준으로, 2사분면에 위치하여,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음

- 둘째, 시·도별 대중국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표준편차의 표준점수에서 제주지역은 국내 평균수준 보다는 다소 높은 변동을 보임

·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표준편차의 표준점수는 전남(1.06), 충북(0.94), 강원(0.63), **제주(0.40)**, 부산(0.19), 광주(0.18), 경북(0.17), 경남(0.06), 충남(-0.11), 전북(-0.21), 대구(-0.25), 울산(-0.28), 대전(-0.41), 인천(-0.49), 경기(-0.71), 서울(-0.74)임

- 셋째,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의존도 연평균 증가율은 -5.3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기타지역 대중국 수입의존도 연평균 증가율은 대전(10.13), 경기(7.09), 충북(5.80), 경북(5.07), 대구(4.34), 광주(3.99), 서울(3.36), 부산(3.33), 인천(2.67), 전북(0.33), 경남(-0.006), 충남(-1.22), 울산(-1.84), 전남(-3.99), 강원(-4.69), **제주(-5.32)**임

-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은 기타지역 대비 규모와 증가율 역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3. 제주지역 대중국 HS 2단위 품목 교역현황 분석

○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의 대중국 교역재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입 품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분석방법으로 2002년부터 2014년 기간 HS 2단위 품목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함

- 양자 간 교역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HS 2단위 품목을 수출입, 수출, 수입, 양자교역[16]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양자교역 품목수를 통해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수준 심화의 간접척도로 살펴보고자 함

· 4가지 유형을 집합의 측면에서 4개 유형을 고려하면, 수출과 수입은 각각의 집합, 수출입[17]은 합집합, 양자교역은 수출과 수입의 교집합을 나타냄

16) 교집합인 양자교역은 동일 품목이 수출과 동시에 수입되는 품목으로 정의함
17) $수출입_{품목수} = 수출_{품목수} + 수입_{품목수} - 양자교역_{품목수}$

○ 교역 유형별 빈도분석을 통해 제주지역과 중국 간 다양한 품목이 교역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Ⅱ-5 참고)

-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HS 2단위 품목이 2002년 39개에서 2014년 68개로 증가함
- 그러나 수출품목보다는 수입품목이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음
- 양자교역의 품목수는 2002년 6개 품목에서 2014년 23개로,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교역수준이 심화되고 있어 산업내무역 수준의 향상을 예상할 수 있음

· 분석기간 수출입의 품목은 약 1.7배, 수출과 수입은 4배와 1.6배, 그리고 양자교역은 약 3.8배의 증가를 보임

〈표 Ⅱ-5〉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 유형별 HS 2단위 품목수

(단위: 개, %)

| 연도 | 수출입 | 수출 | 수입 | 양자교역 |
|---|---|---|---|---|
| 2002 | 39 | 8 | 37 | 6 |
| 2003 | 47 | 13 | 43 | 9 |
| 2004 | 49 | 10 | 47 | 8 |
| 2005 | 52 | 13 | 51 | 12 |
| 2006 | 55 | 11 | 51 | 7 |
| 2007 | 51 | 11 | 49 | 9 |
| 2008 | 55 | 16 | 52 | 13 |
| 2009 | 56 | 14 | 51 | 9 |
| 2010 | 55 | 16 | 53 | 14 |
| 2011 | 58 | 17 | 53 | 12 |
| 2012 | 68 | 28 | 66 | 26 |
| 2013 | 68 | 34 | 61 | 27 |
| 2014 | 68 | 31 | 60 | 23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 양자교역의 품목명을 〈표 Ⅱ-6〉 중 제시함

<표 Ⅱ-6> 양자교역 HS 2단위 품목 분류

| 년도 | HS 2단위 품목번호(품목명) |
|---|---|
| 2002 | 06(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2(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양용 식물, 짚·사료식물), 84(원자료·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94(가구와 핌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96(잡품) |
| 2003 | 0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水生)무척추동물), 06, 07(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19(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 84(원자료·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6(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90(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2004 | 07, 12, 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39, 73(철강의 제품), 84, 85, 90 |
| 2005 | 03, 06, 07, 12, 39, 44(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62(의류와 그 부속품), 63(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8(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84, 85, 94 |
| 2006 | 06, 12, 39, 44, 70(유리와 유리제품), 84, 85 |
| 2007 | 06, 07, 20(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3, 39, 48(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또는 판지의 제품), 84, 85, 87(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2008 | 03, 06, 12, 20, 33, 39, 48, 68, 69(도자제품), 83(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5, 95 |
| 2009 | 03, 06, 12, 21(각종 조제식료품), 22(음료, 알코올, 식초), 33, 39, 84, 85, 95 |
| 2010 | 03, 06, 12, 20, 22, 33, 34, 49, 52, 62, 63, 84, 85, 90 |
| 2011 | 03, 06, 12, 17, 19, 21, 22, 33, 39, 84, 85, 95 |
| 2012 | 03, 06, 07, 12, 17, 18(코코아, 코코아조제품), 20, 21, 22, 25(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32(유연·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33, 39, 55(인조단섬유), 58(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61(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62, 76(알루미늄과 그 제품), 82, 84, 85, 89(선박과 수상구조물), 90, 94, 95, 96 |
| 2013 | 03, 06, 07, 09(커피, 차, 마태, 향신료), 12, 17, 19, 20, 21, 22, 33, 39, 40(고무와 그 제품), 49, 54(인조장섬유), 55, 58, 61, 62, 64(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73, 84, 85, 87, 94, 95, 97(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2014 | 03, 05(기타 동물성생산품), 07, 09, 12, 21, 22, 29, 33, 34, 38, 39, 48, 49, 55, 58, 62, 73, 76, 84, 85, 90, 96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HS 2단위 코드와 품목명을 제시함, 분석기간 품목별 중복을 고려하여, 각 품목당 품목명은 1회 제시

- 2002-2014년 상위 5개 빈도 양자교역 품목은 HS 84(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6(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2(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사료식물),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들 수 있음(표 Ⅱ-7 참고)

- 2002-2014년 양자교역의 총 빈도는 175번이며, 이 중 무역흑자를 보이는 빈도는 49번으로 무역적자 빈도보다 2배 이상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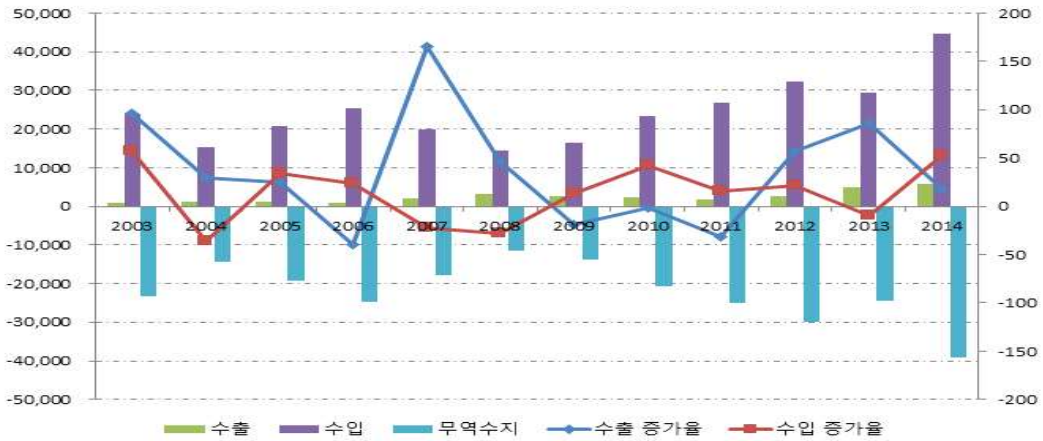
<표 Ⅱ-7> 제주지역과 중국 간 양자교역 품목별 빈도분석

| CODE | HS03 | HS05 | HS06 | HS07 | HS09 | HS12 | HS17 | HS18 | HS19 | HS20 | HS21 | HS22 |
|---|---|---|---|---|---|---|---|---|---|---|---|---|
| 빈도수 | 9 | 1 | 11 | 7 | 2 | 11 | 3 | 1 | 3 | 5 | 5 | 6 |
| 순위 | (6) | (34) | (2) | (8) | (25) | (2) | (17) | (34) | (17) | (11) | (11) | (9) |
| CODE | HS25 | HS29 | HS32 | HS33 | HS34 | HS38 | HS39 | HS40 | HS44 | HS48 | HS49 | HS52 |
| 빈도수 | 1 | 1 | 2 | 9 | 2 | 1 | 11 | 1 | 2 | 3 | 3 | 1 |
| 순위 | (34) | (34) | (25) | (6) | (25) | (34) | (2) | (34) | (25) | (17) | (17) | (34) |
| CODE | HS54 | HS55 | HS58 | HS61 | HS62 | HS63 | HS64 | HS68 | HS70 | HS73 | HS76 | HS82 |
| 빈도수 | 1 | 3 | 3 | 2 | 5 | 2 | 1 | 2 | 1 | 3 | 2 | 1 |
| 순위 | (34) | (17) | (17) | (25) | (11) | (25) | (34) | (25) | (34) | (17) | (25) | (34) |
| CODE | HS84 | HS85 | HS86 | HS87 | HS89 | HS90 | HS94 | HS95 | HS96 | HS97 | | |
| 빈도수 | 13 | 11 | 1 | 2 | 5 | 6 | 4 | 5 | 3 | 1 | | |
| 순위 | (1) | (2) | (34) | (25) | (11) | (9) | (16) | (11) | (17) | (34)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 4.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수지와 주요 흑자·적자 품목 분석

○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은 중국과의 교역 중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함(그림 Ⅱ-5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천 달러(좌), %(우))

[그림 Ⅱ-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

- 비록 분석기간 제주지역 대중국 연평균 증가율이 24.62%로 수입의 경우보다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임

- 수입이 수출보다 명확하게 큰 규모를 보이며 더욱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역적자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비록 연도별 등락을 달리하지만, 전반적인 무역적자규모의 증가추세를 예상할 수 있음

- 동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변동폭이 크지 않음

○ <표 II-8>은 2002-2014년 중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흑자를 보이는 품목을 제시함

- 동기간 중 무역흑자를 보였던 HS 2단위 품목은 총 33개로 이 중 22개가 양자교역을 진행한 적이 있음

<표 Ⅱ-8>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흑자 HS 2단위 품목

(단위: 천 달러)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04 | - | - | - | - | - | - | - | - | - | - | 39 | 135 | 113 |
| 06 | **204*** | **132*** | 103 | **388*** | 201 | **1,092*** | **1,860*** | - | **378*** | - | - | - | - |
| 08 | - | 105 | - | - | - | - | - | 121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1 | - | - | - | 7 |
| 12 | 10 | - | 150 | 18 | - | - | - | - | - | - | - | 75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14 | 2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79 |
| **17** | - | - | - | - | - | - | - | **2** | 5 | 3 | 14 | 8 | 9 |
| 18 | - | - | - | - | 5 | - | - | - | - | 31 | **377*** | 67 | 129 |
| 19 | - | - | - | - | - | - | - | - | - | - | - | 24 | 8 |
| **20** | - | - | - | - | - | 49 | 162 | 169 | 248 | **302*** | 118 | 297 | 87 |
| 21 | 18 | - | - | - | - | - | - | - | - | 9 | - | 124 | 44 |
| 22 | - | 10 | - | - | 4 | 16 | 148 | **1,414*** | - | - | - | - | 81 |
| 24 | - | - | - | - | - | - | 5 | 3 | - | - | - | 1 | - |
| 30 | - | - | - | 359 | **311*** | - | 65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 | 87 | 289 | **1,598*** |
| 34 | - | - | - | - | - | - | - | - | 24 | - | - | - | 46 |
| 49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51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52 | - | - | - | - | - | - | - | - | 373 | 1 | 40 | 60 | - |
| 54 | - | 64 | - | - | - | - | - | - | - | - | - | 249 | - |
| 55 | - | - | - | - | - | - | - | - | - | 80 | 138 | 41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26 | - |
| 60 | - | 227* | - | - | - | - | - | - | - | - | - | **1,500*** | 183 |

| | | | | | | | | | | | | | |
|---|---|---|---|---|---|---|---|---|---|---|---|---|---|
| 75 | – | – | – | – | – | – | – | – | – | – | – | 150 | – |
| 76 | – | – | – | – | – | – | – | – | – | – | 71 | – | – |
| 81 | – | – | – | – | – | – | – | 65 | – | – | – | – | – |
| 84 | 125 | 17 | 32 | – | – | – | – | – | – | – | – | – | – |
| 85 | 1 | – | – | – | 54 | 280 | – | – | – | – | – | – | – |
| 86 | 3 | – | – | – | 4 | 1 | – | – | – | – | – | – | – |
| 89 | – | – | 381* | – | – | – | – | – | – | – | 2 | – | – |
| 96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 연도별 무역흑자규모 1위 품목

회색 배경색이 있는 품목은 양자교역 중 흑자무역 품목임

· 오직 수출만을 진행한 11개 품목으로 HS 04(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8(식용의 과실과 견과류·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3(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6(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24(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30(의료용품), 51(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60(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72(철강), 75(니켈과 그 제품), 86(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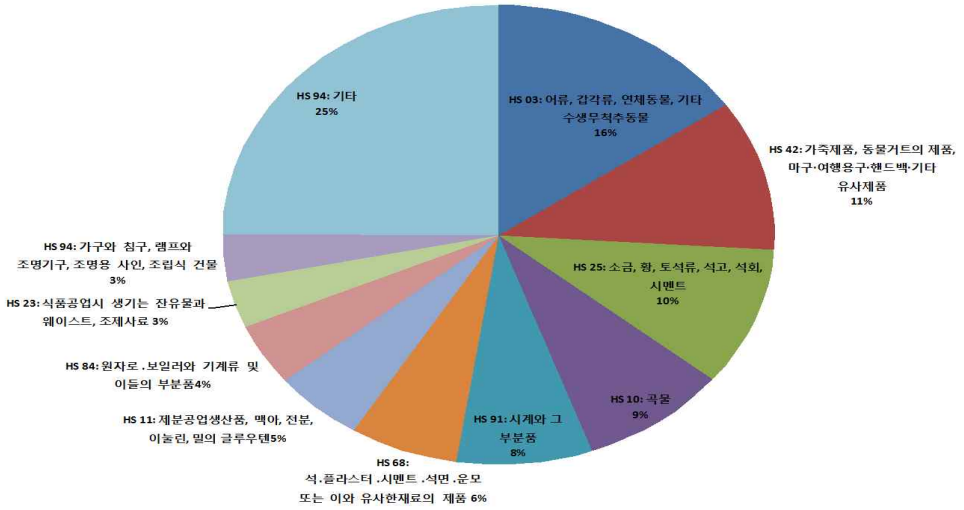
- 2014년 무역흑자규모가 가장 높은 품목은 HS 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로 159만 8천 달러에 달함

· HS 20(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17(당류와 설탕과자), 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각각 2007, 2009년 및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임

- 게다가 33개 무역흑자 품목 중 14개 품목이 식료품·담배 관련 품목이며, 향후 대중국 식품관련 품목의 수출확대 가능성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가장 큰 품목은 수산업 관련 품목임(그림 Ⅱ-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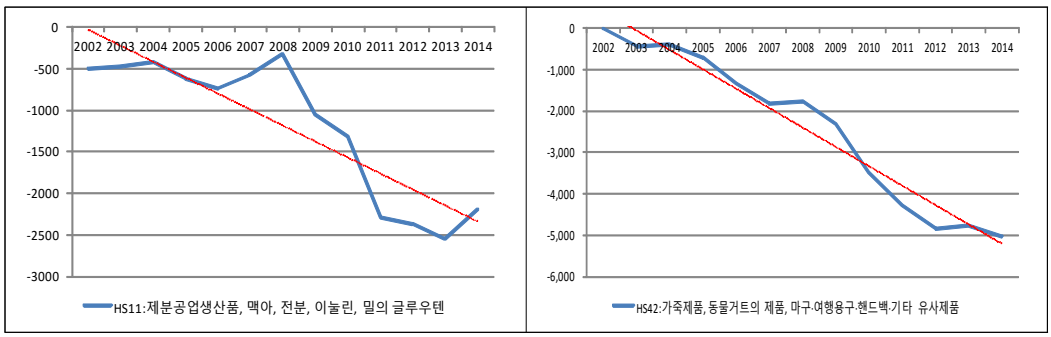
- 수산업이 비교적 발달된 제주지역에서 대중국 무역적자액 규모가 가장 높은 품목이 HS 0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인 것은 이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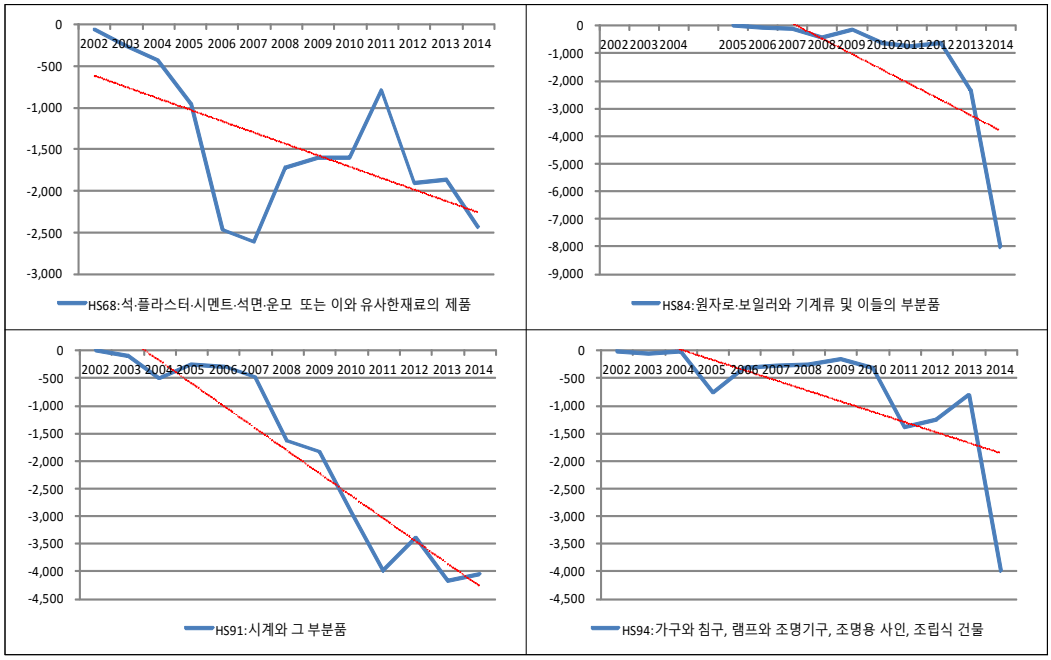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

[그림 Ⅱ-6] HS 2단위 품목별 무역적자규모 비교

- [그림 Ⅱ-7]은 [그림 Ⅱ-6]의 품목 중 최근 무역적자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을 제시함
- 이중 무역적자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은 HS 84(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 2005-2014년 연평균 109.16%의 증가율을 보임
- 다음으로 "HS 91(89.48), 42(56.44), 94(55.38), 68(33.15), 11(12.05)" 을 들 수 있음[18]




18) ( ) 내 값은 무역적자규모 2002-20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천 달러)

[그림 Ⅱ-7] 2002-2014년 기간 주요 무역적자 품목

○ 2002-2014년 13개 연도별 무역적자규모 1위 품목 중 HS 0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품목이 5개 연도 중 최대 무역적자 규모를 보임(표 Ⅱ-9 참고)

- 2014년에 들어 HS 84(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의 적자규모가 801만 1천 달러로 가장 높은 적자규모를 보여, 빠른 증가세를 보임

- HS 25(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는 2003, 2005, 2006년 무역적자규모 1위를 차지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만 1천 달러의 적자규모를 보임

〈표 Ⅱ-9〉 연도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적자규모 1위 품목

(단위: 천 달러)

| 연도 | HS | 품목명 | 무역적자액 |
|---|---|---|---|
| 2002 | 10 | 곡물 | 4,688 |
| 2003 | 25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7,188 |

| | | | |
|---|---|---|---|
| 2004 | 0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4,160 |
| 2005 | 25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5,632 |
| 2006 | 25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7,618 |
| 2007 | 10 | 곡물 | 3,535 |
| 2008 | 0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2,022 |
| 2009 | 0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2,806 |
| 2010 | 0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3,737 |
| 2011 | 42 |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 4,284 |
| 2012 | 0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5,929 |
| 2013 | 42 |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 4,772 |
| 2014 | 84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8,011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 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규모 전망

○ 앞서 제주지역과 중국 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적자 규모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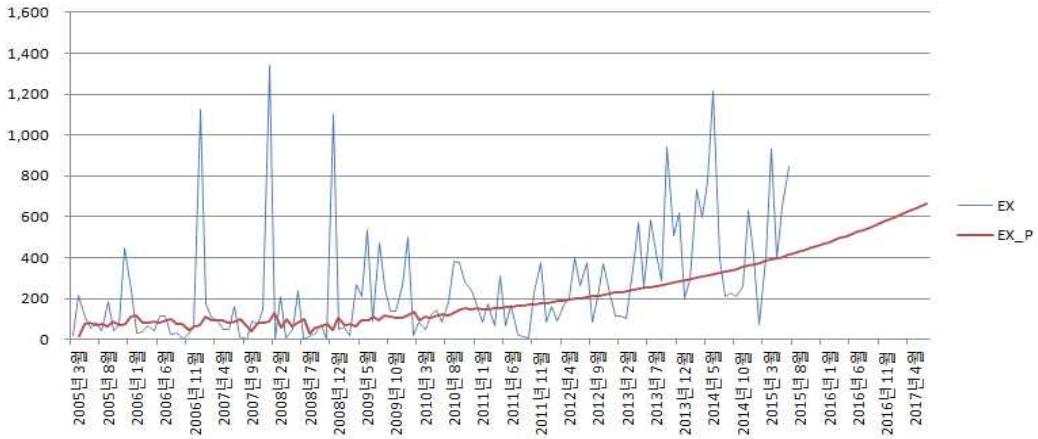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향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를 각각 전망하여, 향후 무역수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실제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등락을 반복하여 변동성이 큰 이유를 고려할 때, 규모 수준 자체 보다 변화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준변수에 대한 로그화와 1차 차분을 진행함

·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전망하기 위한 모형으로 ARIMA(1,0,1), ARIMA(1,1,1) 모형을 응용함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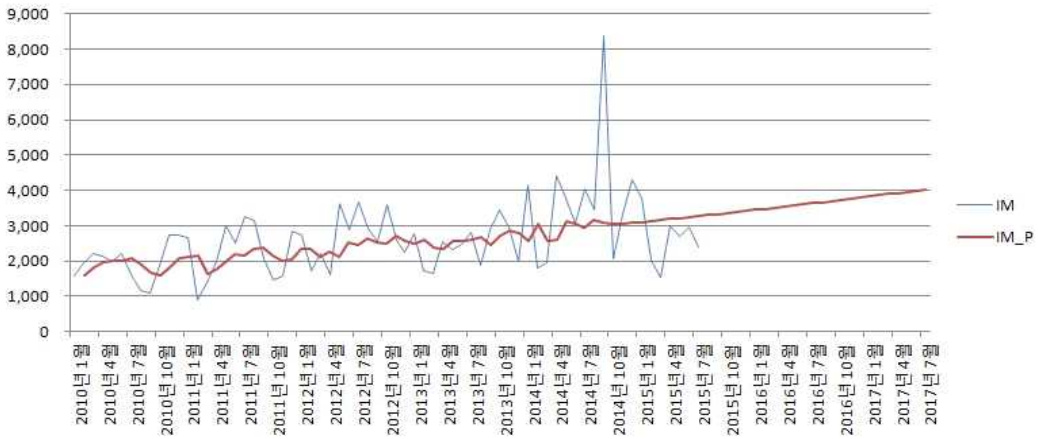
- 첫째, 대중국 수출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약 월평균 2%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그림 Ⅱ-8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천 달러)

[그림 Ⅱ-8]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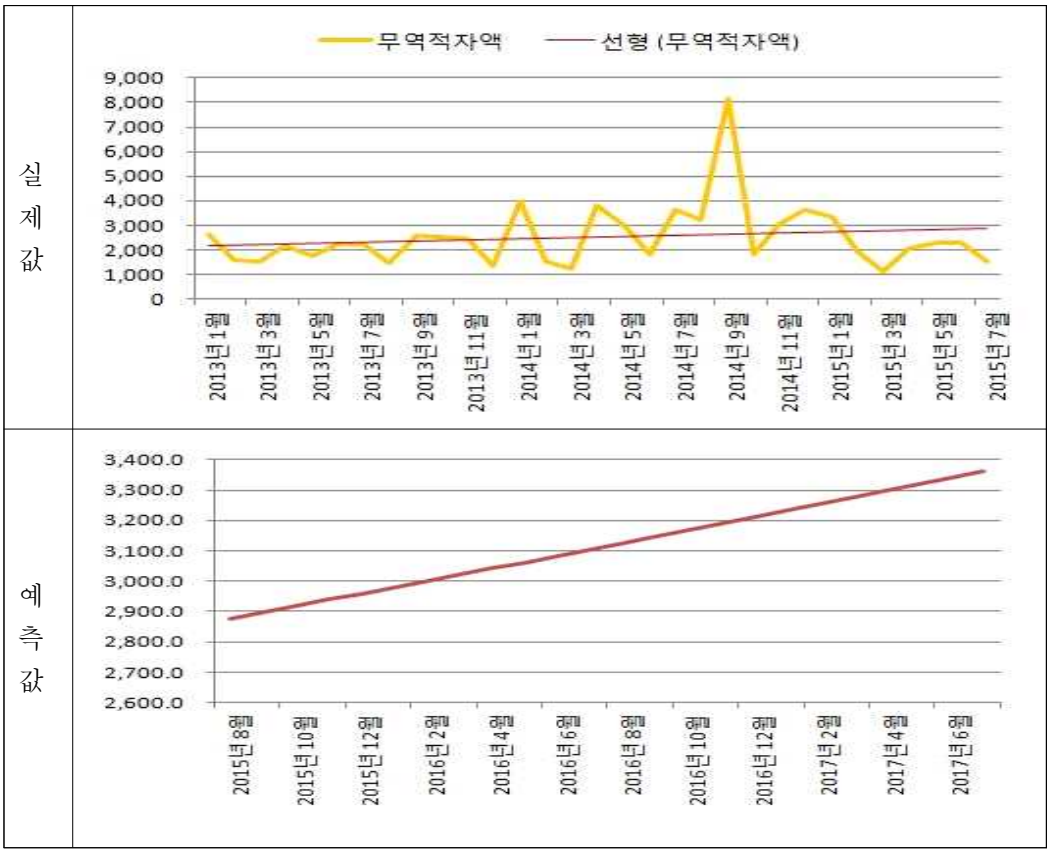
- 둘째, 수입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약 월평균 0.9%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그림 Ⅱ-9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천 달러)

[그림 Ⅱ-9]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규모 전망

- 셋째, 수출과 수입의 전망치에 따르면, 비록 대중국 수출의 증가속도가 수입보다 더욱 높지만, 기존에 수출규모가 매우 작음으로 인해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됨(그림 Ⅱ-10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천 달러)

[그림 Ⅱ-10]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 전망

- 비록 분석결과가 선형 추세선으로 정확한 무역적자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무역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는 제주지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수출촉진과 수입대체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이상의 분석은 한중 FTA 발효 이전 기간의 제주지역과 중국 간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및 전망한 것으로, 한중 FTA 발효 시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4장 중 한중 FTA 양허표의 품목별 양허유형을 고려하여 한중 FTA 발효 시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자 함

# Ⅲ.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앞서 HS 2단위 품목을 통해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수준을 살펴보고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 중 제주지역의 무역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함

- 한국과 중국의 무역은 줄곧 흑자를 기록, 이에 반해 제주지역은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임
- 무역 흑자와 적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고려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HS 6단위 품목에 대하여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경쟁력을 분석한 후, 양자 간 교역 중 제주에게 기회와 위협이 되는 품목을 도출하여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 확대 가능성이 많은 품목을 살펴보고자 함
-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비교우위지수[19]와 산업내무역지수[20]를 활용함

## 1. 무역경쟁력 분석 방법

### 1) 시장비교우위지수(MCAI: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2002-2014년 기간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HS 6단위 품목별 무역경쟁력 수준을 추정함(식 2 참고)

- 시장비교우위지수는 '0' 보다 큰 값을 가지며, '1'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해당 수출품이 상대 국가의 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해당 수출품에 비해 무역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됨

---

19)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은 정태적인 분석으로 일정 시점에 대한 양자 간 산업·상품에 대한 무역경쟁력을 제시하기에, 동태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며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시점별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 대한 기회와 위협을 반영한다고 사료됨

20) 비록 산업내무역지수는 동일 품목에 대한 교역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나 분석 중 수출입 품목별 상대가격을 "고품질 수출·저품질 수입" 과 "저품질 수출·고품질 수입" 의 두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질적인 측면에서 무역경쟁력을 반영한다고 사료됨(식 2 참고)

$$MCAI_{kt} = \frac{X_{ij}^{tk}/X_{ij}^{t}}{M_{jw}^{tk}/M_{jw}} \quad (2)$$

$X_{ij}^{tk}$ : $t$년도 $i$국가(지역)에서 $j$국가(지역)에 대한 $k$품목 수출액
$X_{ij}^{t}$ : $t$년도 $i$국가(지역)에서 $j$국가(지역)에 대한 총수출액
$M_{jw}^{tk}$ : $t$년도 $j$국가(지역)의 대세계 $k$품목 총 수입액
$M_{jw}$ : $t$년도 $j$국가(지역)의 대세계 총 수입액

- 이하 분석 중 추정된 제주지역 대중국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는 실제로 중국의 대제주지역 시장비교우위지수보다 매우 큰 값들을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은 식(2) 중 $X_{ij}^{tk}/X_{ij}^{t}$ 부분이 $M_{jw}^{tk}/M_{jw}$보다 매우 큰 값을 갖게 만듦

· 이는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액이 일부 품목에 크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2) 산업내무역지수(IITI: Intra Industry Trade Index)

○ 산업내무역지수를 통해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 중 어느 품목의 교역수준이 심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함(식 3 참고)

- 산업내무역지수는 동일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진행되며, 제품 차별성 혹은 규모의 경제가 높은 산업에서 큰 값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내무역지수는 해당 산업의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를 반영함

$$IITI_{tk} = 1 - \frac{\left|X_{ij}^{tk} - M_{ij}^{tk}\right|}{X_{ij}^{tk} + M_{ij}^{tk}} \quad (3)$$

$IITI_{tk}$ : $t$년도 $k$품목 산업내무역지수
$X_{ij}^{tk}$ : $t$년도 $i$국가(지역)의 $j$국가(지역)에 대한 $k$품목 수출액
$M_{jw}^{tk}$ : $t$년도 $i$국가(지역)의 $j$국가(지역)에 $k$품목 수출액

· 산업내무역지수의 값은 0~1 구간에 위치하여, 만약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제로(=0)' 일 경우[21] 산업내무역지수는 0의 값을,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22]

21) $X_{ij}^{tk} = 0,\ M_{jw}^{tk} = 0$
22) $X_{ij}^{tk} = M_{jw}^{tk}$

1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완전한 산업내무역[23]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상대가격(Relative Price, 이하 'RP')[24]에 따라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구분 할 수 있음(표 Ⅲ-1 참고)

·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가격 RP가 0.75-1.25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를 수평적 산업내무역(H)으로, 0.75 이하 혹은 1.25 이상일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V)으로 분류하고 있음[25]

· RP가 0.75 이하인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저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고품질을 수입하며, 1.25 이상의 RP 값을 보이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저품질 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에 따라 전자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LQV), 후자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HQV)로 구분함

<표 Ⅲ-1>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분류

| | 값 구간 | 분류 | 특징 |
|---|---|---|---|
| 상대가격 | 0.75 이하 | 수직적 산업내무역 | 저품질 수출, 고품질 수입 |
| | 0.75-1.25 | 수평적 산업내무역 | |
| | 1.25 이상 | 수직적 산업내무역 | 고품질 수출, 저품질 수입 |

출처: 김창범(2012).

○ 이하는 제주지역과 중국 간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에 앞서 2002-2014년 HS 6단위 수출입 유형별 빈도분석을 통해 양자 간 무역발전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의 2장에서 HS 2단위 품목별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지만, 더욱 세분화 된 HS 6단위 품목은 더욱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임

23) 품목의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음
24) 상대가격은 수출품의 단가를 해당 수입품의 단가로 나누어준 값으로, 수출품의 단가는 총 수출액을 수출중량으로 나눈 값이며, 수입품의 단가는 수입액을 수입중량으로 나눈 값임
25) 김창범, "원/위안화 실질환율과 국제유가가 전남지역의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6호, 2012.12

## 2. HS 6단위 품목별 교역 빈도 분석

○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이 매우 다양화되었음(표 Ⅲ-2 참고)

- 동기간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이 진행된 HS 6단위 총 품목수는 2002년 177개에서 2014년 783개로 약 4.42배 증가함

- 수출과 수입의 총 품목수는 2002년 17개와 162개에서 2014년 57개와 755개로 각각 3.35배, 4.66배 증가함

· 앞서 2장의 HS 2 단위 품목의 경우 수출의 품목수가 수입보다 더욱 큰 증가를 보였으나 본 절의 분석 중 대중국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그 증가속도 또한 더욱 높음을 나타냄

· 이는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품이 더욱 광범위 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제주지역 수출품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Ⅲ-2>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 유형별 HS 6단위 품목수

(단위: 개)

| 연도 | 품목수 | | | |
|---|---|---|---|---|
| | 수출입 | 수출 | 수입 | 양자교역 |
| 2002 | 177 | 17 | 162 | 2 |
| 2003 | 288 | 14 | 278 | 4 |
| 2004 | 311 | 18 | 297 | 4 |
| 2005 | 325 | 18 | 315 | 8 |
| 2006 | 329 | 13 | 320 | 4 |
| 2007 | 345 | 15 | 332 | 2 |
| 2008 | 339 | 25 | 324 | 10 |
| 2009 | 343 | 36 | 315 | 8 |
| 2010 | 415 | 28 | 400 | 13 |
| 2011 | 468 | 29 | 455 | 16 |
| 2012 | 632 | 58 | 606 | 32 |
| 2013 | 708 | 80 | 653 | 25 |
| 2014 | 783 | 57 | 755 | 29 |
| Total | 5,463 | 408 | 5,212 | 157 |
| 2015* | 728 | 66 | 698 | 36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 2015년 데이터는 1월-8월 기간 데이터

- 양자교역 품목은 2002년 2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0개, 2014년 29개로 크게 확대됨[26)]

· 게다가 2015년 1-8월 기간 양자교역 품목은 36개로 이미 2014년 1개 연도의 29개 품목을 초과하여 2015년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 수출보다 수입부문의 품목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그림 Ⅲ-1 참고)

-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의 품목수 격차는 HS 6단위 품목기준 2002년 145개에서 2014년 698개로, 4.81배 증가함

- 비록 2015년 상위 8개월 기준 품목수가 632개[27)]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수입이 수출에 비해 품목수가 압도적으로 다양함

· 수출에 비해 수입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은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적자규모 증가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제주지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중국 수출품목을 적극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개)

참고: * 2015년 데이터는 1월-8월 기간 데이터

[그림 Ⅲ-1] HS 6단위 수출과 수입품목수 비교

26) <표 Ⅱ-5> 중 2002년 양자교역 품목수는 6개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HS 6 단위 품목별 분석 시 더욱 낮은 수준을 보임, 이는 HS 2단위 품목은 HS 6단위 품목의 상위 분류 기준이기 때문임

27) 632=698-66

# 3. HS 6단위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1) 제주지역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2002-2015년 기간 HS 6단위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함

- 동기간 HS 6단위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수출입 데이터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데이터 중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액은 존재하지만, 중국의 대세계 수입규모가 제로(0)인 경우 등 통계 수치상의 불일치로 인한 부적절한 데이터[28]를 제외하면, 제주지역은 동기간 429개 빈도[29]가 1보다 큰 시장비교우위지수[30]를 가짐

- 대중국 수출 시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2002년 17개에서 2015년 56개로 약 3.29배 증가함(표 Ⅲ-3 참고)

- 그러나 각 연도별 시장비교우위지수 품목수가 증감을 달리하며 변동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의 대중국 품목별 무역경쟁력이 변화하고 있음

<표 Ⅲ-3> 제주지역 HS 6단위 대중국 무역경쟁력 품목수

(단위: 개)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총합 |
|---|---|---|---|---|---|---|---|---|---|---|---|---|---|---|---|
| 품목수 | 17 | 14 | 17 | 18 | **12** | 14 | 20 | 32 | **27** | 29 | 51 | 76 | **46** | 56 | **429**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 만약 특정연도에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향후 지속적으로 무역경쟁력을 갖는다면, 연도별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수는 적어도 전년대비 동일 혹은 증가를 보일 것이나, 2006·2010·2014년 3개 연도에서 전년대비 감소함

28) 식(2) 중 $X_{ij}^{tk}$는 0의 값이 아니지만, $M_{jw}^{tk}$는 0의 값을 갖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이는 "수출은 목적국 기준을, 수입은 원산지 기준으로 금액을 집계하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의한 차이, 시점(월말 및 연말, 예를 들어 한국에서 12월 31일 수출하였으나 중국에서는 1월 1일 수입될 경우)에 의한 차이, 환율에 의한 차이 등에 의한 것" 을 들 수 있음 (출처:K-state FAQ)

29) 각 빈도마다 1개 품목을 의미하며, 분석 기간이 2002-2015년 기간이기에 중복되는 품목이 존재함

30) 본 분석 중 1보다 큰 값의 시장비교우위지수를 갖는 품목을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고려함

○ <표 Ⅲ-4>는 2002-2015년 기간 HS 6단위 품목별 무역경쟁력 품목의 빈도수[31]와 최근 시점과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상위 10개 품목임[32]

- 향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상품의 중국시장 무역경쟁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최근과 근접한 시점이 더욱 중요할 것임

<표 Ⅲ-4>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경쟁력 상위 10개 품목과 시장비교우위지수

| HS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060290 | 9,451.0 | 3,518.0 | 2,540.1 | 2,974.9 | 8,571.0 | 17,294.2 | 22,922.5 | 1,486.1 | 15,234.1 | 4,293.9 | 245.4 | 152.8 | 0.00 | 0.00 |
| 220110 | 0.00 | 2,230.7 | 0.00 | 0.00 | 462.9 | 545.1 | 810.6 | 30,407.0 | 3,666.8 | 3,451.0 | 3,820.5 | 5,124.3 | 3,396.2 | 1,285.1 |
| 200830 | 0.00 | 0.00 | 0.00 | 0.00 | 0.00 | 762.7 | 1,112.9 | 891.2 | 1,379.8 | 2,781.8 | 1,110.7 | 2,371.0 | 688.0 | 538.0 |
| 121220 | 933.0 | 0.00 | 5,784.1 | 3,334.7 | 542.7 | 0.00 | 574.1 | 249.2 | 1,136.0 | 2,572.3 | 0.00 | 0.00 | 0.00 | 0.00 |
| 22089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505.0 | 9.2 | 344.7 | 1,057.7 | 990.4 | 857.4 | 1,200.1 | 1,197.0 |
| 17049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20.2 | 53.1 | 53.5 | 144.5 | 108.8 | 25.8 | 11.1 |
| 030199 | 0.00 | 7,510.0 | 0.00 | 4,611.0 | 0.00 | 0.00 | 63.5 | 678.3 | 248.6 | 0.00 | 889.2 | 113.0 | 0.00 | 0.00 |
| 330499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 | 0.00 | 0.00 | 3.2 | 140.9 | 145.0 | 298.2 | 83.6 |
| 180631 | 0.00 | 0.00 | 0.00 | 0.00 | 495.0 | 0.00 | 0.00 | 9.6 | 0.00 | 0.00 | 1,209.1 | 246.6 | 228.0 | 1,758.7 |
| 09022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3.0 | 390.0 | 0.00 | 0.00 | 719.4 | 803.8 | 6,948.6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단위: 시장비교우위지수)

참고: 2015년 데이터는 1월-8월 기간 누적 값을 이용하여 계산함

-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국제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2002-2015년 기간을 전반기(2002-2008)와 후반기(2009-2015)로 분류하여, HS 6단위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의 평균값[33]을 비교함(표 Ⅲ-5 참고)

- 전반기 중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수는 59개이며, 후반기는 180개에 달함

-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시장비교우위지수의 평균값이 1보다 큰 품목수는 16개이며, 이중 8개 품목은 전반기 대비 무역경쟁력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8개 품목은 감소함

31) 분석기간 중 빈도수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역경쟁력 수준의 증감뿐만 아니라, 무역경쟁력 상품으로 분류된 품목의 지속성 역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이유를 들 수 있음

32) 페이지 분량을 고려하여 상위 10개 품목만을 제시함

33) 전·후반기 각각의 기간 중 7개 연도의 시점이 포함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전환함

- 후반기 중 감귤류과실(200830), 광수, 탄산수(220110), 접착성 피복제 관련 물품(220890)은 7개 연도 모두에서 무역경쟁력을 보임

<표 Ⅲ-5> 전·후반 시장비교우위지수 평균값 비교

| HS | 품목명 | 전반기 | 후반기 | 비교 |
|---|---|---|---|---|
| 030199 | 기타 활어 | 1523.1(3) | 241.1(4) | 감소 |
|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1.5(1) | 15.1(1) | **증가** |
| 060290 | 기타 수목 | 8409.0(7) | 2676.5(5) | 감소 |
| 070690 | 기타 식용 냉동 뿌리근 | 13460905(3) | 4861.2(1) | 감소 |
| 080520 | 만다린, 클레멘타인, 윌킹과이와 유사한 감귤류잡종 | 1652.3(1) | 246.4(3) | 감소 |
| 121220 | 해초류와 기타조류 | 1396.1(5) | 494.7(3) | 감소 |
|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34] | 61.9(1) | 431.5(5) | **증가** |
|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 11.0(1) | 10.8(1) | 감소 |
| 200830 | 감귤류과실 | 234.4(2) | 1220.1(7) | **증가** |
| 210690 | 기타 조제식료품 | 22.4(1) | 8.2(3) | 감소 |
| 220110 | 광수, 탄산수(감미료나 향미 첨가 안한 것) | 506.2(4) | 6393.9(7) | **증가** |
| 22089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 63.1(1) | 707.1(7) | **증가** |
| 330510 | 샴푸 | 6.5(1) | 56.2(3) | **증가** |
| 39159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4.7(2) | 2.9(1) | 감소 |
| 540761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 함유량 이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 7.0(1) | 12.0(1) | **증가** |
| 848079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기타 주형 | 6.4(1) | 13.1(2) | **증가**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 )는 각 기간의 7개 연도 중 빈도를 의미함

- 2012년 이후 거래 품목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표 Ⅲ-2 참고),

34) HS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2013-2015년 기간 중 무역경쟁력이 있는 16개 품목을 살펴봄(표 Ⅲ-6 참고)[35]

· 후반기와 2013-2015년 기간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HS 220890(기타음료), 330499(기타 화장품), 090220(기타녹차), 180631(기타초콜릿조제식품), 030389(기타냉동어류), 130219(기타식물성액), 210690(기타조제식품), 220290(기타음료), 190590(기타베이커리제품)들은 최근 들어 무역경쟁력이 더욱 향상하였음

· 이중 기타녹차, 초콜릿·코코아 조제식품, 기타 식물성수액, 기타 베이커리 제품의 2015년 시장비교우위지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

- 후반기 모든 연도에서 무역경쟁력을 보인 품목으로 HS220110(광수, 탄산수), 170490(기타 과자류), 200830(감귤류과실), 220890(기타 음료)를 들 수 있음

<표 Ⅲ-6> 2013-2015년 제주지역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 비교

| HS | 품목명 | 전반기 | | 2013 | 2014 | 2015 | 후반기 | | 증감* |
|---|---|---|---|---|---|---|---|---|---|
| | | 평균 | 빈도 | | | | 평균 | 빈도 | |
| 220110 | 광수, 탄산수 | 578.5 | 4 | 5,124.3 | 3,396.2 | 1,285.1 | 7,307.3 | 7 | 감소 |
| 170490 | 기타 (1704: 설탕과자(백색초콜릿 포함, 코코아를 함유한 것 제외)) | 0 | 0 | 108.8 | 25.8 | 11.1 | 59.6 | 7 | 감소 |
| 200830 | 감귤류과실 | 267.9 | 2 | 2,371.0 | 688.0 | 538.0 | 1,394.4 | 7 | 감소 |
| 220890 | 기타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 72.1 | 1 | 857.4 | 1,200.1 | 1,197.0 | 808.1 | 7 | 증가 |
| 330499 | 기타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제품류) | 0.1 | 1 | 145.0 | 298.2 | 83.6 | 95.8 | 5 | 증가 |
| 090220 | 기타 녹차(미발효차) | 0 | 0 | 719.4 | 803.8 | 6,948.6 | 1,267.8 | 5 | 증가 |
|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1806: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 70.7 | 1 | 246.6 | 228.0 | 1,758.7 | 493.1 | 5 | 증가 |
| 030389 | 기타(0303: 냉동어류) | 0 | 0 | 155.8 | 435.0 | 363.0 | 177.3 | 4 | 증가 |
| 121221 | 식용 | 0 | 0 | 933.0 | 383.1 | 26.9 | 728.4 | 4 | 감소 |
| 1806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36] | 0 | 0 | 210.4 | 451.3 | 193.3 | 482.1 | 4 | 감소 |
| 130219 | 기타 (1302: 식물성수액과 추출물, 펙티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 얻은 한천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 | 0 | 0 | 93.3 | 18.4 | 176.7 | 41.2 | 3 | 증가 |

35)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후반기 중 2013-2015년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함

| | | | | | | | | | |
|---|---|---|---|---|---|---|---|---|---|
| 210690 | 기타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 25.6 | 1 | 45.3 | 17.5 | 2.7 | 9.4 | 3 | 증가 |
| 220290 | 기타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 0 | 0 | 13.4 | 5.6 | 8.5 | 3.9 | 3 | 증가 |
| 190590 | 기타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 0 | 0 | 78.5 | 12.4 | 239.7 | 47.2 | 3 | 증가 |
| 390190 | 에틸렌의 기타 중합체 | 0 | 0 | 24.6 | 57.6 | 61.5 | 20.5 | 3 | 증가 |
| 732393 | 스테인레스강제의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 0 | 0 | 352.1 | 325.6 | 190.8 | 124.1 | 3 | 증가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전반기(2002-2008), 후반기(2009-2015), 2015년은 1월부터 8월의 데이터 값임
2013-2015년 기간 시장비교우위지수의 평균값과 후반기 평균값을 비교함
( ) 내 품목명은 HS 6단위 품목명의 모호성을 고려, 상위 HS 4단위 품목명을 제시함

## 2) 중국의 대제주지역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 중국의 대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수가 2002년 105개에서 2015년 478개로 약 4.55배 증가함(표 Ⅲ-7 참고)

- 이는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경쟁력 품목수와 비교하여, 2002년은 6.18개, 2015년은 8.54배 큰 규모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임

〈표 Ⅲ-7〉 중국의 대제주지역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수

(단위: 개)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총합 |
|---|---|---|---|---|---|---|---|---|---|---|---|---|---|---|---|
| 품목수* | 105 | 208 | 239 | 238 | 255 | 259 | 266 | 242 | 297 | 318 | 427 | 443 | 488 | 478 | **4,263**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36) HS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 중국의 대제주지역 HS 6단위 수출품 중 2002-2015년 기간 중 최소 1개 연도에서 무역경쟁력을 보인 품목은 모두 1,356개에 달함(표 Ⅲ-8 참고)

- 이는 동기간 제주지역의 239개 무역경쟁력 품목 대비 약 5.92배 많음

- <표 Ⅲ-8>[37]에서 제시한 상위 10개 품목 각각의 전·후반기 시장비교우위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기타신발류(HS 640419) 품목을 제외하고 기타 9개 품목의 후반기 무역경쟁력은 더욱 증가함[38]

<표 Ⅲ-8> 중국의 대제주지역 무역경쟁력 10개 상위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

| HS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전 | 후 |
|---|---|---|---|---|---|---|---|---|---|---|---|---|---|---|---|---|
| 071290 | 3.77 | 4.60 | 7.18 | 6.83 | 9.58 | 9.08 | 13.99 | 10.86 | 8.83 | 8.31 | 9.51 | 8.85 | 7.26 | 11.01 | 7.9 | 9.2 |
| 680223 | 2.55 | 4.60 | 7.18 | 6.68 | 9.58 | 9.08 | 13.99 | 10.86 | 8.83 | 8.45 | 9.59 | 8.85 | 7.27 | 9.95 | 7.7 | 9.1 |
| 680293 | 3.77 | 4.60 | 7.18 | 6.83 | 9.58 | 9.08 | 13.99 | 10.86 | 8.83 | 8.45 | 9.59 | 8.85 | 7.27 | 9.32 | 7.9 | 9.0 |
| 110819 | 3.77 | 4.60 | 7.18 | 6.83 | 9.58 | 9.08 | 13.99 | 10.86 | 8.70 | 7.87 | 9.59 | 8.85 | 7.27 | 9.32 | 7.9 | 8.9 |
| 702000 | 1.03 | 2.49 | 7.18 | 6.83 | 4.72 | 4.46 | 4.46 | 4.25 | 8.58 | 8.06 | 7.70 | 7.74 | 4.60 | 5.59 | 4.5 | 6.6 |
| 690890 | 0.00 | 1.31 | 5.90 | 6.19 | 9.58 | 9.08 | 13.99 | 10.86 | 8.83 | 8.45 | 9.59 | 8.85 | 7.27 | 9.25 | 6.6 | 9.0 |
| 420329 | 0.00 | 4.58 | 7.17 | 4.04 | 3.34 | 1.17 | 12.46 | 10.75 | 8.43 | 5.98 | 7.02 | 1.74 | 1.63 | 1.75 | 4.7 | 5.3 |
| 640419 | 3.77 | 4.51 | 7.16 | 6.62 | 8.10 | 7.00 | 11.71 | 4.54 | 0.00 | 2.19 | 7.24 | 7.45 | 5.95 | 5.05 | 7.0 | 4.6 |
| 940330 | 0.00 | 0.00 | 7.18 | 6.62 | 2.34 | 8.75 | 13.84 | 10.78 | 8.80 | 8.45 | 9.58 | 8.66 | 7.15 | 7.15 | 5.5 | 8.7 |
| 681599 | 0.00 | 4.60 | 4.65 | 0.00 | 9.01 | 9.01 | 13.99 | 8.91 | 6.74 | 7.89 | 6.85 | 8.85 | 4.11 | 9.32 | 5.9 | 7.5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참고: 2015년 데이터는 1월-8월 기간 누적 값을 이용하여 계산함

- 중국의 무역경쟁력 품목은 제주지역에 비해 품목수가 월등히 많으며, HS 6단위 1,356개의 품목을 HS 2단위 코드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2002-2015년 기간 HS 84(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에 134개의 HS 6단위 품목이 포함되어,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임(부록 표-1 참고[39])

37) 페이지 분량을 고려하여 상위 10개 품목만을 제시함
38) 2002-2015년 기간 빈도수를 1차 기준, 후반기 시장비교우위지수를 2차 기준으로 품목을 배열함
39) 많은 품목을 포함하기에,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부록 중 제시함

· 다음으로 HS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2(의류와 그 부속품)등의 품목을 들 수 있으며, 큰 무역적자 규모를 보이던 0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16개의 품목을 포함함

○ 앞서 분석한 제주지역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와 무역수지 간에 5%의 유의수준 하에서 양의 상관관계[40]가 존재함

- 그러나 중국의 대제주지역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음(표 Ⅲ-9 참고)

- 이는 제주지역은 품목별 무역경쟁력 수준이 향상된다면, 중국과의 교역 중 무역적자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Ⅲ-9>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와 대중국 무역수지의 관계

| | 제주지역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 | 중국의 대제주 시장비교우위지수 |
|---|---|---|
| 무역수지 | 0.419* | −0.2535 |
| | (0.0109) | (0.1358) |

### 3)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 2002-2015년 기간 연도별 교역수준이 가장 심화된 품목을 <표 Ⅲ-10> 중 제시함

- 2002-2015년 기간 중 HS 6단위 843390은 2004년과 2005년에, 854239은 2007년과 2008년에 060290은 2009년과 2011, 2013년 3개 연도에서 가장 높은 산업내무역 수준을 보임

- 2002년 중국의 WTO 가입 시기, 제주지역과 산업내무역지수 최대값이 0.27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반면, 2003년 0.95로 상승한 이후 연도별 산업내무역지수 최대값은 등락을 달리하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HS 732393(스테인레스 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품) 품목은 분석기간 중 처음으로 **수평적** 산업내무역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내무역 수준을 보인 품목임

40) 2002-2015년 기간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큰 품목과 해당 품목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함

- 또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품목들 중 HS 060290(기타) 품목은 2009년에는 저품질 수출·고품질 수입하였으나, 2013년에는 고품질 수출과 저품질 수입을 보임

· HS 121220(해조류와 기타 조류), 030199(기타), 854239(기타), 320990(기타), 841490(부분품)은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저품질 상품을 수입하며, 843390(부분품), 870860(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48079(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기타 주형) 품목들은 저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고품질 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 연도별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고·저품질 수출입 유형

| 년도 | HS 6단위 | 품목명 | 산업내 무역지수 | RP |
|---|---|---|---|---|
| 2002 | 121220 | 해초류와 기타 조류 | 0.27 | 48.61(HQV) |
| 2003 | 030199 | 기타(0301:활어) | 0.95 | 4.14 (HQV) |
| 2004 | 843390 | 부분품(수확기나 탈곡기(8433: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 0.95 | 0.64 (LQV) |
| 2005 | 843390 | 부분품(") | 0.90 | 0.70 (LQV) |
| 2006 | 870860 |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0.84 | 0.73 (LQV) |
| 2007 | 854239 | 기타(8542:전자직접회로) | 0.75 | 2.92 (HQV) |
| 2008 | 854239 | 기타(8542:전자직접회로) | 0.84 | 4.66 (HQV) |
| 2009 | 060290 | 기타(0602: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 꺾꽂이용가지, 접붙임용가지, 버섯의 종균) | 0.75 | 0.29 (LQV) |
| 2010 | 848079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기타 주형 | 0.81 | 0.09 (LQV) |
| 2011 | 060290 | 기타(") | 0.87 | 0.06 (LQV) |
| 2012 | 320990 | 기타(3209: 페인트와 바니시) | 0.98 | 11.38(HQV) |
| 2013 | 060290 | 기타(") | 0.91 | 97.36(HQV) |
| 2014 | 732393 | 스테인레스 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품 | 0.71 | 0.87 (H) |
| 2015 | 841490 | 부분품(8414: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 0.97 | 15.11(HQV)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 2002-2015년 기간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 품목들을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분류하면, 제주지역과 중국 간에는 수평적 산업내무역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됨(표 Ⅲ-11 참고)

- 고품질 수출·저품질 수입에 해당하는 빈도가 95개로 저품질 수출·고품질 수입의 경우보다 더욱 많음

〈표 Ⅲ-11〉 수평적·수직적 산업내무역 품목 빈도 분석

| 구분 | 빈도수 | 구분 | 빈도수 |
|---|---|---|---|
| 수평적 산업내무역 | 22 | - | - |
| 수직적 산업내무역 | 171 | HQV | 95 |
| | | LQV | 76 |
| 총계 | 193 | - | 171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 산업내무역지수와 해당 품목들의 무역수지 간에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Ⅳ. 한중 FTA의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기회와 위협 분석

○ 한중 FTA는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만을 남겨둔 상태로,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무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임

○ 한중 FTA 양허표에 근거하여 앞서 도출한 제주지역과 중국의 무역경쟁력 품목별 기회와 위협을 살펴보고자 함

## 1. 한중 FTA 주요 내용

○ 한국과 중국은 협정 발효 후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의함[41)]

- 품목수를 기준하여,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중국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

  · 중국 전체 품목의 9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중국에 비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수가 많으나,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대한국 수입 85%(1,417억 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한국은 대중국 수입 91%(736억 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

- 무역자유화 최종 달성 시 대중국 수출 관세절감액은 연간 54.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함

○ 한중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 방식[42)]을 도입함(표 Ⅳ-1 참고)

- <표 Ⅳ-1> 중 양허유형 "O(上)" 에서 "E(下)" 로 이동할 때, 자국시장에 대한 보호수준이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41) "한중 FTA가서명 참고자료, 2015, 산업통상자원부" P.2의 참고로, 품목수는 HS 2012년 한국 10단위, 중국 8단위, 수입액은 2012년 수입액 기준임

42) 차등철폐라고도 함

<표 Ⅳ-1> 한중 FTA 양허유형 분류

| 양허유형 | 내용 |
|---|---|
| 0 |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 철폐 |
| 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
| 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
| 10-A | 8년간 관세 유지, 9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10년차에 무관세 |
| 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
| 15-A | 10년간 관세 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15년차에 무관세 |
| 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
| 20-A | 10년간 관세 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관세 |
| 20-B | 12년간 관세 유지, 13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관세 |
| PR-1 |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
| PR-8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PR-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PR-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PR-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PR-3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PR-3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PR-5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PR-13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
| TRQ[43] |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준관세율 유지 |
| E | 기준관세율 유지 |

자료: 한중FTA(www.fta.go.kr/cn).

- 다만 양국의 품목별 민감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농산물 3개, 공산품 2개의 총 5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함(표 Ⅳ-2 참고)

·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함

43)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TRQ(저율할당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제한적 선정, TRQ 품목으로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 보리, 냉동낙지 등 21개가 있음

<표 Ⅳ-2> 한중 FTA 비선형 관세인하 품목

| 유형 | 한국 | | 중국 | |
|---|---|---|---|---|
| | 품목 | 기준세율 | 품목 | 기준세율 |
| 10A | 액정디바이스(2개) | 8% | LCD 패널(1개) | 5% |
| 15A | - | | 광학기기부품(1개) | 8% |
| 20A | 잼(1개) | 30% | | |
| | 조제저장 기타 과실견과(1개) | 45% | | |
| 20B | 기타 한약재(1개) | 8%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 한중 FTA 양허표 중 양허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 3개 품목유형으로 구분하여, 양허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표 Ⅳ-3 참고)

- 일반적으로 한중 양국의 양허표 중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의 수입규모가 단기간에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반해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은 장기적으로 보호받는 품목임

· 일반품목은 기존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보다 짧은 기간에 선형 철폐되며,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선형, 비선형으로 철폐되거나 관세율이 유지됨

- 일반품목에서 즉시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한국의 품목수는 50%로 수입액의 52%이며, 중국은 52%로 수입액의 44%임

· 한중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대중국 수출 730억 달러, 대중 수입 418억 달러로, 한미 총 수출입액 1,036억 달러를 초과함

· 유관세[44] 기준 중국측 즉시 관세 철폐액이 87억 1천만 달러로, 한국의 80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함

- 10년 내 관세 철폐되는 한국의 품목수는 전체의 79%로 수입액의 77%이며, 중국은 품목수 71%에 수입액 66%에 달함

- 20년 내 관세 철폐되는 품목수는 한국의 경우 전체 품목수의 92%로 수입액의 91%이며, 중국은 전체 품목수의 91%로 수입액의 85%임

44) 양허표 중 기준세율이 "0" 의 무관세의 경우가 아닌 경우로, 관세가 징수되었던 품목을 의미함

<표 Ⅳ-3>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

(단위: 개,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 | 한국 양허 | | | | 중국 양허 | | | |
|---|---|---|---|---|---|---|---|---|---|
| | | 품목수 | 비중 | 대중국 수입액 | 비중 | 품목수 | 비중 | 대한국 수입액 | 비중 |
| 일반 품목 | 즉시철폐 | 6,108 | 49.9 | 41,853 | 51.8 | 1,649 | 20.1 | 73,372 | 44.0 |
| | (무관세) | 1,983 | 16.2 | 33,811 | 41.9 | 691 | 8.4 | 94,658 | 38.8 |
| | (유관세) | 4,125 | 33.7 | 8,042 | 9.96 | 958 | 11.7 | 8,714 | 5.2 |
| | 5년 철폐 | 1,433 | 11.7 | 3,098 | 3.8 | 1,679 | 20.5 | 5,830 | 3.5 |
| | 10년 철폐 | 2,149 | 17.6 | 17,330 | 21.5 | 2,518 | 30.7 | 31,250 | 18.7 |
| | **소계** | **9,690** | **7.2** | **62,281** | **77.1** | **5,846** | **71.3** | **110,453** | **66.2** |
| 민감 품목 | 15년 철폐 | 1,106 | 9.0 | 7,951 | 9.8 | 1,108 | 13.5 | 21,917 | 13.1 |
| | 20년 철폐 | 476 | 3.9 | 3,406 | 4.2 | 474 | 5.8 | 9,375 | 5.6 |
| | **소계** | **11,272** | **92.2** | **73,638** | **91.2** | **7,428** | **90.7** | **141,744** | **85.0** |
| 초민감 품목 | 부분감축[45] | 87 | 0.7 | 2,276 | 2.8 | 129 | 1.6 | 10,014 | 6.0 |
| | TRQ | 21 | 0.2 | 569 | 0.7 | – | – | – | – |
| | 협정배제 | 16 | 0.1 | 77 | 0.1 | – | – | – | – |
| | 양허제외 | 836 | 6.8 | 4,209 | 5.2 | 637 | 7.8 | 14,994 | 9.0 |
| | **소계** | **960** | **7.8** | **7,131** | **8.8** | **766** | **9.4** | **25,008** | **15.0** |
| | **합계** | **12,232** | **100** | **80,768** | **100** | **8,194** | **100** | **166,752** | **1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 2. 한중 FTA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분석

### 1) 중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품목

○ 본 절에서는 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HS 6단위 수출 데이터[46]를 활용하여, 중국양허표[47]에 근거한 향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기회를 살펴보고자 함

45) 양허제외 품목에 비해 상대적 민감성이 덜한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관세 감축을 통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김치, 당면, 땅콩, 들깨, 냉동꽃게, 냉동 복어 등 35개 품목이 있음

46) 앞장의 분석 중 2002-2015년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2015년 데이터는 아직 1개 연도를 반영할 수 없으며, 2016년에 만약 한중 FTA 발효 후, 근접시점의 교역수준을 통해 전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2014년 대중국 HS 6단위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활용함

47) 중국양허표는 HS 8단위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한국의 대중국 HS 품목별 분류는 2단위, 4단위, 6단위, 10단위의 이용이 가능함

- HS 10단위에 기준한 한국양허표와 달리 중국양허표는 HS 8단위에 근거하여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 HS 6단위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함

· 비록 HS 8단위와 HS 6단위 대중국 수출품목이 완벽히 일치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HS 6단위 분류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HS 8단위 품목이 HS 6단위의 하위 품목인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을 진행함

○ 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HS 6단위 수출품목수는 총 56개이며, 본 품목은 중국양허표 중 119개 HS 8단위 품목의 상위 분류임(표 Ⅳ-4 참고)

- 119개 HS 8단위 품목에 대하여 중국양허표의 양허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품목은 71개, 민감품목 38개, 초민감품목 10개에 달함

· 게다가 119개 HS 8단위 품목 중 유관세 품목이 총 113개이며[48], 이와 관련된 제주지역 대중국 HS 6단위 품목은 총 54개임

〈표 Ⅳ-4〉 한중 FTA 발효 시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유형분류

(단위: 개)

| 구분 | | 일반품목 | | | 민감품목 | | 초민감품목 | | | | - |
|---|---|---|---|---|---|---|---|---|---|---|---|
| 양허유형 | | 0 | 5 | 10 | 15 | 20 | PR-8 | PR-20 | PR-35 | E | Total |
| 품목수 | A | 12 | 15 | 44 | 22 | 16 | 2 | 1 | 3 | 4 | 119 |
| | B | 6 | 15 | 44 | 22 | 16 | 2 | 1 | 3 | 4 | 113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참고: A: 수출품목수와 중국양허표, B: 유관세 수출품목수와 중국양허표

○ 즉시 관세철폐 HS 8단위 품목수는 총 12개이나 기존 무관세였던 6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즉시 관세철폐의 효과를 보는 품목으로 6개 HS 8단위 품목을 들 수 있음(표 Ⅳ-5 참고)

48) 중국양허표의 품목 중 기준세율이 "0" 의 관세율을 보인다면, 한중 FTA 발효 이전 이미 무관세 품목이므로, 기준세율이 "0" 이 아닌 품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HS 12112010(아메리칸 인삼을 제외한 산삼), 13021920(아자디라크틴), 13021930(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의 것), 21069030(로열젤리), 84149019(기타), 84149090(기타) 6개임[49)]

· 해당 유관세 6개 HS 8단위 품목의 상위 HS 6단위 품목명은 HS 121120(인삼), 130219(기타 식물성 수액), 210690(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제식품), 841490(부분품)을 들 수 있음

〈표 Ⅳ-5〉 일반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8단위 품목수

(단위:%, 개)

| 즉시 철폐 | | 5년 철폐 | | 10년 철폐 | |
|---|---|---|---|---|---|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 3 | 3 | 6.5 | 3 | 6 | 1 |
| | | 8 | 2 | 6.5 | 1 |
| 7 | 1 | 9 | 1 | 8 | 1 |
| 7.5 | 1 | 10 | 8 | 10 | 11 |
| 8 | 1 | 12 | 1 | 10.5 | 1 |
| – | – | – | – | 12 | 5 |
| – | – | – | – | 13 | 4 |
| – | – | – | – | 14 | 4 |
| – | – | – | – | 15 | 15 |
| – | – | – | – | 18 | 1 |
| Total | 6 | Total | 15 | Total | 4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10년 관세철폐 품목 중 기준세율이 15%인 품목이 15개로 가장 많음

- 이중 11개에 해당하는 품목[50)]의 상위 HS 6단위 품목명은 '식용(HS121221)' 으로 2014년 대중국 수출액이 20만 1,322 달러에 달함

· 게다가 11개 품목의 기준세율은 모두 15%이며, 향후 10년 간 '식용' 관련 품목은 대중국 수출확대 유망품목으로 사료됨

49) 6개 품목의 관세율은 최소 3%에서 최대 8%임

50) HS12122131(건조한 것), 12122132(신선한 것), 12122139(기타), 12122141(건조한 것), 12122142(신선한 것), 12122149(기타), 12122161(건조한 것), 12122169(기타), 12122171(건조한 것), 12122179(기타), 12122190(기타)

○ 민감품목은 36개로, 이중 22개 품목은 15년 관세철폐에 해당함

- 15년 관세철폐 품목 중 기준세율 20%인 품목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상위 HS 6단위 품목으로 130219(기타 식물성 추출액), 121120(인삼), 121221(식용)을 들 수 있음 (표 Ⅳ-6 참고)

- 20년 관세철폐 품목 중 관세인하폭이 가장 높은 품목은 기준세율 35%에 해당하는 HS 21069010(음료의 베이스), 22029000(기타 음료)임

· HS 6단위 기준 130219(기타 식물성 추출액)과 121120(인삼)의 하위 품목분류인 HS 8단위의 경우 '즉시철폐' 와 '15년 철폐' 두 유형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이로써 HS 130219와 121120 두 품목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표 Ⅳ-6> 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8단위 품목수

(단위:%, 개)

| 15년 철폐 | | 20년 철폐 | |
|---|---|---|---|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 6.5 | 2 | 10 | 8 |
| 7.5 | 1 | 12 | 2 |
| 8 | 1 | 20 | 3 |
| 10 | 7 | 23 | 1 |
| 15 | 1 | 35 | 2 |
| 20 | 10 | - | - |
| Total | 22 | Total | 16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초민감품목은 모두 10개로 이중 기준관세율 유지 품목(E)이 4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가장 적은 품목임(표 Ⅳ-7 참고)

- 본 10개의 HS 8단위 품목의 상위 품목분류인 HS 6단위 품목별 대중국 순수출 규모를 보면 HS 481920(골판이외의 지와 판지제 상자류)품목을 제외하고 9개 품목은 모두 무역흑자를 보이는 품목임

- 즉 초민감품목 중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에서 무역흑자를 보이는 품목은 완전개방 수준을 늦추거나, 기준세율을 유지하는 성향이 높음

· 초민감품목에 대한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 중 상위 3개 흑자 품목으로 HS 33049900(기타)[51], 39019090(기타)[52], 21069090(기타)[53]을 들 수 있음

〈표 Ⅳ-7〉 초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8단위 품목수

(단위:%, 개)

| PR-8 | | PR-20 | | PR-35 | | E | |
|---|---|---|---|---|---|---|---|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 6.5 | 1 | 6.5 | 1 | 6.5 | 3 | 5 | 1 |
| 20 | 1 | - | - | - | - | 6.5 | 1 |
| - | - | - | - | - | - | 15 | 1 |
| - | - | - | - | - | - | 20 | 1 |
| Total | 2 | Total | 1 | Total | 3 | Total | 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이상 분석한 HS 8단위 113개 품목을 상위 분류인 HS 6단위로 구분하면 〈표 Ⅳ-8〉과 같음

- HS 210690(기타)은 양허유형 '0%, 10%, 15%, 20%, PR-8' 에 모두 포함되어 단기적 기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 확대 역시 고려해야 하는 품목으로 나타남

- HS 121120(인삼), 382490(기타: HS3824 조제점결제), 390190(에틸렌의 기타 종합체), 600410[54](HS6004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 841490(부분품)[55] 품목은 3개 양허유형에 포함되며 이중 841490 품목은 양허유형 중 일반품목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 품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51) HS 3304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제품류
52) HS 3901 : 에틸렌의 중합체
53) HS 2106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54)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55) HS 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표 Ⅳ-8> HS 8단위 중국양허품목의 HS 6단위 품목 구성

| 일반품목 | | | | | | 민감품목 | | | | 초민감품목 | | | | | | | |
|---|---|---|---|---|---|---|---|---|---|---|---|---|---|---|---|---|---|
| 0 | | 5 | | 10 | | 15 | | 20 | | PR-8 | | PR-20 | | PR-35 | | E | |
| HS | T | HS | T | HS | T | HS | T | HS | T | HS | T | HS | T | HS | T | HS | T |
| 121120 | 1 | 051191 | 1 | 030331 | 2 | 030389 | 1 | 030749 | 1 | 210690 | 1 | 330499 | 1 | 330510 | 1 | 121120 | 1 |
| 130219 | 2 | 382490 | 4 | 030354 | 1 | 040900 | 1 | 160300 | 1 | 390120 | 1 | | | 340211 | 1 | 330430 | 1 |
| 210690 | 1 | 580410 | 3 | 030389 | 3 | 121120 | 2 | 170490 | 1 | | | | | 390190 | 1 | 390190 | 1 |
| 841490 | 2 | 600410 | 3 | 051191 | 2 | 121221 | 2 | 190590 | 1 | | | | | | | 481920 | 1 |
| | | 600542 | 1 | 051199 | 2 | 130219 | 3 | 200830 | 1 | | | | | | | | |
| | | 600644 | 1 | 071190 | 4 | 180631 | 1 | 210690 | 1 | | | | | | | | |
| | | 732690 | 1 | 090220 | 2 | 180632 | 1 | 220110 | 1 | | | | | | | | |
| | | 841490 | 1 | 121221 | 11 | 190190 | 1 | 220290 | 1 | | | | | | | | |
| | | | | 180620 | 1 | 200830 | 1 | 220890 | 1 | | | | | | | | |
| | | | | 210690 | 1 | 210690 | 1 | 381400 | 1 | | | | | | | | |
| | | | | 220890 | 2 | 220110 | 1 | 392310 | 1 | | | | | | | | |
| | | | | 294000 | 1 | 382490 | 1 | 580410 | 1 | | | | | | | | |
| | | | | 340111 | 1 | 390190 | 1 | 600192 | 1 | | | | | | | | |
| | | | | 382490 | 1 | 390599 | 1 | 600410 | 1 | | | | | | | | |
| | | | | 621410 | 1 | 491191 | 1 | 600532 | 1 | | | | | | | | |
| | | | | 621710 | 3 | 551622 | 1 | 761699 | 1 | | | | | | | | |
| | | | | 732393 | 1 | 600410 | 1 | | | | | | | | | | |
| | | | | 732690 | 1 | 600642 | 1 | | | | | | | | | | |
| | | | | 761699 | 1 | | | | | | | | | | | | |
| | | | | 841410 | 1 | | | | | | | | | | | | |
| | | | | 841490 | 1 | | | | | | | | | | | | |
| | | | | 900311 | 1 | | | | | | | | | | | | |
| Total | 6 | Total | 15 | Total | 44 | Total | 22 | Total | 16 | Total | 2 | Total | 1 | Total | 3 | Total | 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참고: T 는 양허유형별 HS 8단위 품목수를 의미

○ 이상의 분석은 대중국 수출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출유망품목을 살펴보았으나, 이하 분석 중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한중 FTA의 기회를 모색함

- 이하 분석 중 2014년도 대중국 수출 시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향후 한중 FTA 발효 후 기대효과와 가장 근접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시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중국양허표를 활용하고자 함

## 2) 중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

○ 제주지역 2014년 대중국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은 46개 품목으로, 이는 중국양허표 중

94개 HS 8단위 품목의 상위 품목에 해당됨(표 Ⅳ-9 참고)

- 94개 품목은 일반품목 52개, 민감품목 33개, 초민감품목 9개로 구성됨

<표 Ⅳ-9> 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의 HS 8단위 중국양허품목 유형분류

| 구분 | 일반 품목 | | | 민감 품목 | | 초민감 품목 | | | | - |
|---|---|---|---|---|---|---|---|---|---|---|
| 양허유형 | 0 | 5 | 10 | 15 | 20 | PR-8 | PR-20 | PR-35 | E | Total |
| 품목수 | 4 | 9 | 39 | 20 | 13 | 1 | 1 | 3 | 4 | 9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시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 중 무관세로 전환될 품목은 HS 8단위 4개 품목으로 12112010(아메리칸 인삼), 13021920(아자디라크틴), 13021930(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의 것), 21069030(로열젤리)" 를 들 수 있음

○ 제주지역 대중국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에 대하여 수출금액을 1기준, 양허유형을 2기준,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를 3기준으로 정렬하여, <부록 표-2[56]>와 같이 제시함[57]

- 관점을 바꿔,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님을 고려하여, 품목별 양허유형을 1기준으로, 시장비교우위지수를 2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록 표-3[5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부록 표-2>과 <부록 표-3>은 다른 기준 하에서, 한중 FTA 발효 후 수출유망품목을 순위별로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상 두 유형의 기준분류에 근거한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의 순위를 재분류[59]하여

56) 많은 품목을 포함하기에,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부록 중 제시함

57) 양허유형을 우선하여 가격경쟁력의 제고수준을 탐색할 수 있지만, 기존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가 중국의 제주산 상품별 수요성향을 반영하기에, 수출금액을 1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제주지역의 대중국 품목별 시장비교우위지수는 지속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고, 자생적인 비교우위보다 중국 소비의 변화 및 대체상품의 출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이 사료되어 3기준으로 설정함

58) 많은 품목을 포함하기에,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부록 중 제시함

59) $Rank = \left( \frac{Rank_{\mathrm{I}} + Rank_{\mathrm{II}}}{2} \right)$
($Rank_{\mathrm{I}}$ : 수출유망품목－Ⅰ의 품목별 순위, $Rank_{\mathrm{II}}$ : 수출유망품목－Ⅱ의 품목별 순위)

10개 수출유망품목의 HS 6단위 코드, 양허유형과 해당 HS 8단위 품목수는 이하와 같음

· 기타냉동어류(HS 030369, HS8단위 품목수: 4, 양허유형: 10), 기타음료(220890, 2, 10), 기타메리야스편물(600410, 3, 5), 식용(121221, 11, 10), 기타조제식품(210690, 1, 0[60]), 인삼(121120, 1, 0), 광수탄산수(220110, 1, 15),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 혼합물(071190, 3, 10), 에틸렌의 기타중합체(390190, 1, 15), 화장용(340111, 1, 10)[61]을 들 수 있음

- 이상 품목 중 기타냉동어류, 식용, 채소류 혼합물 중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수출 기회 확대가 예상됨

- 화장용 품목의 경우 약용 역시 포함되어, 기존 제주지역의 청정 이미지에 기반한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의료 및 치료용 화장품의 수출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3. 한중 FTA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유망품목 분석

## 1) 한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품목

○ 이하에서는 2014년 제주지역과 중국 간 HS 10단위 품목별 수입 데이터[62]를 활용하여 한국양허표에 근거한 한중 FTA의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에 대한 기회를 살펴봄

- 2014년 HS 10단위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품목 중 707개 품목은 한국양허표 상의 품목에 해당함[63]

- 707개 대중국 수입품을 한국양허표의 양허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표 Ⅳ-10>와 같음

60) 중국양허표 중 해당 HS 8단위 코드는 21069030에 해당함

61) 약용을 포함한 화장용 품목을 의미함

62) 이상의 분석 중 2002-2015년 데이터를 주요하게 분석하였지만, 2015년 수출입 데이터는 아직 1개 연도의 수준을 반영할 수 없기에, 만약 2016년 중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근접연도의 교역 수준을 통해 전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2014년 제주지역과 중국 간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함

63) 실제로 2014년 제주지역과 중국 간 교역 중 "2309909090, 2424000000, 3926906000, 4409109000, 4409299000, 5003009000, 8512201090, 8512202090, 8513102090, 8513109010, 8513109090, 8515901090" 등 HS 10 단위 품목이 수입되었으나, 한국양허표 중 해당 HS 10단위 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본 분석 중 고려하지 않음

- 일반품목 549개, 민감품목 93개, 초민감품목 65개에 달함

· 또한 707개 해당 품목 중 유관세 품목수는 총 637개에 달함

<표 Ⅳ-10> 한중 FTA 발효 시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유망품목 유형분류

(단위: 개)

| 구분 | | 일반품목 | | | 민감품목 | | | 초민감품목 | | | | | - |
|---|---|---|---|---|---|---|---|---|---|---|---|---|---|
| 양허유형 | | 0 | 5 | 10 | 15 | 20 | 20-A | PR-10 | PR-30 | E | TRQ | Carved-Out | Total |
| 품목수 | A | 228 | 63 | 258 | 73 | 18 | 2 | 8 | 3 | 52 | 1 | 1 | 707 |
| | B | 158 | 63 | 258 | 73 | 18 | 2 | 8 | 3 | 52 | 1 | 1 | 637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참고: A: 수출품목수와 중국양허표, B: 유관세 수출품목수와 중국양허표

○ 2014년 기준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품 중 549개(총 품목의 77.7%)는 일반품목으로, 한중 FTA 발효 시 이들 품목에 대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표 Ⅳ-11 참고)

-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즉시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은 228개며, 이 중 70개가 무관세 품목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 이들 제품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유관세 품목 중 일반품목수는 479개에 달함

- 그러나 즉시 관세철폐의 158개 유관세 품목은 2014년 중국과의 거래에서 모두 무역적자를 보이는 품목으로 이들 제품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 사료됨

· HS 2304000000(대두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고체형태의 유박)의 2014년 무역적자액은 291만 1,067 달러로 유관세 158개 품목 중 무역적자가 가장 큼

- 즉시 관세철폐 158개 품목 중 기준세율이 8%인 품목이 113개로 가장 많고, 관세 인하폭이 가장 큰 품목의 기준세율은 13%로 12개 품목이 해당됨

<표 Ⅳ-11> 일반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10단위 품목수

(단위:%, 개)

| 0 | | 5 | | 10 | |
|---|---|---|---|---|---|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 1.8 | 1 | 3 | 1 | 3 | 1 |
| 5 | 3 | 5 | 3 | 5 | 3 |
| 6.5 | 27 | 6.5 | 19 | 6.5 | 24 |
| 8 | 113 | 8 | 39 | 8 | 130 |
| 10 | 2 | 13 | 1 | 10 | 11 |
| 13 | 12 | - | - | 13 | 88 |
| - | - | - | - | 20 | 1 |
| Total | 158 | Total | 63 | Total | 258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대중국 637개의 수입품목 중 민감품목은 93개(14.6%)에 달함 (표 Ⅳ-12 참고)

- 15년 관세철폐의 민감품목 중 기준세율이 8%인 품목이 50개로 가장 많으며, 이중 HS 4202122000(방직용 섬유재료 제품)의 적자액이 113만 8,598달러로 가장 큰 무역적자규모를 보임

<표 Ⅳ-12> 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10단위 품목수

(단위:%, 개)

| 15 | | 20 | | 20-A | |
|---|---|---|---|---|---|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 5 | 2 | 8 | 7 | 30 | 1 |
| 6.5 | 7 | 10 | 2 | 45 | 1 |
| 8 | 50 | 13 | 3 | - | - |
| 10 | 1 | 20 | 2 | - | - |
| 13 | 13 | 40 | 1 | - | - |
| - | - | 45 | 1 | - | - |
| - | - | 50.6 | 2 | - | - |
| Total | 73 | Total | 18 | Total | 2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향후 한중 FTA 발효 15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입규모가 일반품목보다 더욱 크기에 제주지역에 대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임

· 민감품목의 2014년 품목별 평균 수입액은 3만 4,424달러로 일반품목의 2만 5,345달러보다 더욱 큰 규모를 보임

○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총 63개로 전체의 10.8%임(표 Ⅳ-13 참고)

- 이중 기준세율 유지품목(E)은 총 52개임

〈표 Ⅳ-13〉 초민감품목 양허유형별 기준세율과 HS 10단위 품목수

(단위:%, 개)

| PR-10 | | PR-30 | | E | |
|---|---|---|---|---|---|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기준세율 | 품목수 |
| 8 | 2 | 8 | 2 | 8 | 13 |
| 13 | 6 | 13 | 1 | 10 | 6 |
| – | – | – | – | 13 | 23 |
| – | – | – | – | 40 | 2 |
| – | – | – | – | 45 | 1 |
| – | – | – | – | 513.6 | 1 |
| – | – | – | – | 양자 중 고액* | 5 |
| Total | 8 | Total | 3 | Total | 52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참고: * 양파: 135% 또는 180원/kg, 천연꿀: 243% 또는 1,864/kg, 당근: 30% 또는 864원/kg,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원/kg

- 기준세율 유지품목 중 513.6%의 높은 세율을 가진 품목이 하나 있는데 이는 HS 10단위 '녹차(0902100000)[64]' 제품임

- 2014년 초민감품목의 평균 수입액은 2만 8,465달러로 일반품목보다 많음

○ HS 10단위 품목을 HS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일반·민감·초민감 3개 품목유형 중 모두 포함되는 HS 2단위 품목은 총 7개로 구성됨(표 Ⅳ-14 참고)

64)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써 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

- 7개 품목으로 각종 조제식품(2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61), 의류와 그 부속품(62),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68), 도자제품(69), 알루미늄과 그 제품(76),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84)을 들 수 있음[65]

- 제주지역의 해당 품목 대중국 수입 규모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표 Ⅳ-14〉 HS 10단위 대중국 수입품의 HS 2단위 품목 구성 빈도

(단위: 개)

| 일반품목 | | | | 민감품목 | | | | 초민감품목 | |
|---|---|---|---|---|---|---|---|---|---|
| HS | 품목수 | HS | 품목수 | HS | 품목수 | HS | 품목수 | HS | 품목수 |
| 84 | 57 | 67 | 5 | 44 | 13 | 31 | 1 | 62 | 22 |
| 62 | 49 | 58 | 4 | 61 | 13 | 46 | 1 | 69 | 8 |
| 61 | 32 | 69 | 4 | 69 | 11 | 55 | 1 | 3 | 5 |
| 42 | 30 | 18 | 3 | 85 | 8 | 66 | 1 | 61 | 4 |
| 39 | 29 | 19 | 3 | 39 | 6 | 70 | 1 | 7 | 3 |
| 63 | 27 | 54 | 3 | 12 | 3 | 74 | 1 | 17 | 3 |
| 82 | 26 | 57 | 3 | 20 | 3 | 80 | 1 | 64 | 3 |
| 85 | 25 | 5 | 2 | 23 | 3 | | | 9 | 2 |
| 33 | 19 | 15 | 2 | 42 | 3 | | | 84 | 2 |
| 73 | 16 | 17 | 2 | 76 | 3 | | | 4 | 1 |
| 64 | 15 | 21 | 2 | 3 | 2 | | | 15 | 1 |
| 70 | 15 | 22 | 2 | 21 | 2 | | | 20 | 1 |
| 83 | 15 | 25 | 2 | 40 | 2 | | | 21 | 1 |
| 71 | 14 | 35 | 2 | 62 | 2 | | | 56 | 1 |
| 40 | 11 | 46 | 2 | 68 | 2 | | | 57 | 1 |
| 68 | 11 | 66 | 2 | 73 | 2 | | | 68 | 1 |
| 34 | 9 | 74 | 2 | 82 | 2 | | | 76 | 1 |
| 65 | 7 | 76 | 2 | 84 | 2 | | | | |

65) 괄호 내 숫자는 HS 2단위 품목코드임
게다가 2번 중복되는 HS 2 단위 품목은 "0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5: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7:당류와 설탕과자, 18: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20: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22:음료, 알코올, 식초, 23: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 40:고무와 그 제품, 42: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46:짚·에스파르토·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55:인조단섬유, 56: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57: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64: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70:유리와 유리제품, 73:철강의 제품, 74:동과 그 제품, 82: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을 들 수 있음

| | | | | | | |
|---|---|---|---|---|---|---|
| 56 | 6 | 23 | 1 | 6 | 1 | |
| 29 | 5 | 27 | 1 | 11 | 1 | |
| 32 | 5 | 30 | 1 | 19 | 1 | |
| 38 | 5 | 55 | 1 | 22 | 1 |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참고: 3개 상품분류 중 모두 포함되는 품목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각 코드별 색상을 나타냄

품목수는 HS 2단위 품목별 HS 10단위 품목수를 나타냄

○ 7개 HS 2단위 품목의 총 빈도수 대비 3개 품목유형 각각의 비중을 계산하여, 품목별 선(先)·후(後) 영향을 구분하면 이하 <표 Ⅳ-15>와 같음

<표 Ⅳ-15> 3개 품목유형 비중별 HS 2단위 품목의 선후 영향 분류

| 유형 구분 | HS | 빈도수 | 총계 | 비중 | 특성 |
|---|---|---|---|---|---|
| 일반 | | 2 | 5 | 40 | |
| 민감 | 21 | 2 | 5 | 40 | 先 |
| 초민감 | | 1 | 5 | 20 | |
| 일반 | | 32 | 49 | 65.3 | |
| 민감 | 61 | 13 | 49 | 26.5 | 先 |
| 초민감 | | 4 | 49 | 8.2 | |
| 일반 | | 49 | 73 | 67.1 | |
| 민감 | 62 | 2 | 73 | 2.7 | 先 |
| 초민감 | | 22 | 73 | 30.1 | |
| 일반 | | 11 | 14 | 78.6 | |
| 민감 | 68 | 2 | 14 | 14.3 | 先 |
| 초민감 | | 1 | 14 | 7.1 | |
| 일반 | | 4 | 23 | 17.4 | |
| 민감 | 69 | 11 | 23 | 47.8 | 後 |
| 초민감 | | 8 | 23 | 34.8 | |
| 일반 | | 2 | 6 | 33.3 | |
| 민감 | 76 | 3 | 6 | 50 | 中 |
| 초민감 | | 1 | 6 | 16.7 | |
| 일반 | | 57 | 61 | 93.4 | |
| 민감 | 84 | 2 | 61 | 3.3 | 先 |
| 초민감 | | 2 | 61 | 3.3 |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품 중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각종 조제식품" 품목들은 비교적 우선 영향을 미칠 것이 고려됨

· "알루미늄과 그 제품" 은 중기에, "도자제품" 은 후차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2) 한국양허표와 중국 무역경쟁력 품목

○ 한국양허표의 품목별 양허유형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제주지역 수출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매칭시켜,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Ⅲ장에서 분석한 HS 6단위 기준 중국의 대제주지역 무역경쟁력 비교우위수준을 활용하여 본 분석을 진행함

- 그러나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양허표에 근거하여, HS 6단위 기준 중국의 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 고려는 품목별 적합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HS 6단위 중국의 대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은 총 488개이며, 하위 HS 10단위 품목은 총 1,316개에 달함

- 그러나 중국이 무역경쟁력을 보이는 HS 6단위 품목에 대하여 한국양허표의 품목별 양허유형을 고려하여, 한중 FTA 발효 시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증가의 위협수준은 분석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국양허표의 1,316개 HS 10단위 품목 중 유관세 품목은 총 1,126개임(표 Ⅳ-16 참고)

- 중국이 제주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일반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중 FTA 발효 후 대중국 수입증가의 영향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표 Ⅳ-16> 중국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의 한국양허표 품목유형 분류

| 구분 | 일반품목 | | | 민감품목 | | 초민감품목 | | | | | | | – |
|---|---|---|---|---|---|---|---|---|---|---|---|---|---|
| 양허유형 | 0 | 5 | 10 | 15 | 20 | PR-1 | PR-10 | PR-20 | PR-30 | PR-130 | TRQ | E | Total |
| 품목수 | 393 | 124 | 356 | 124 | 39 | 1 | 8 | 1 | 3 | 1 | 4 | 72 | 1,126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이는 일반품목의 양허수준이 관세 즉시철폐 혹은 균등철폐로 분류됨을 고려할 때 한중 FTA 발효 후 일반품목의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규모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을 의미함

- 또한 기존 수입규모가 큰 품목은 한중 FTA 발효 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393개 즉시 관세철폐 품목을 수입규모 1기준, 시장비교우위수준 2기준, 양허유형[66] 3기준으로 정렬하여 상위 10개 품목을 제시하면 <표 Ⅳ-17>과 같음

- "원자로·보일러의 부분품(HS 841290)" 은 601만 달러의 수입규모와 7.27 무역경쟁력, 기준세율 5%의 절감 효과로 한중 FTA 발효 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입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됨

· 게다가 앞서 살펴본 HS 84 품목이 대중국 무역적자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2014년 대중국 최대 무역적자품목임을 고려할 때, 한중 FTA 발효 후 무역적자폭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 존재함

<표 Ⅳ-17> 대중국 수입규모 증가 상위 10개 예상 품목

(단위: 만 달러, %)

| HS 6 | 품목명 | 수입액 | MCAI | HS 10 | 기준세율 |
|---|---|---|---|---|---|
| 841290 | 부분품(84: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601 | 7.27 | 8412901090 | 5 |
|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392 | 4.46 | 9102119090<br>9102111000<br>9102112000 | 8<br>8<br>8 |
| 230400 | 대두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 | 291 | 1.38 | 2304000000 | 1.8 |
| 630790 |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136 | 6.94 | 6307903000<br>6307901000 | 10<br>10 |
| 84361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 75 | 7.27 | 8436109000<br>8436101000<br>8436103000 | 8<br>8<br>8 |
| 420221 | 외부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 73 | 2.47 | 4202211020<br>4202211040<br>4202211010<br>4202212000<br>4202213000<br>4202211050<br>4202211030 | 8<br>8<br>8<br>8<br>8<br>8<br>8 |

66) 기준세율이 무관세 품목이 아니라면, <표 Ⅳ-17> 중 제시된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절감액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함

| | | | | | |
|---|---|---|---|---|---|
| 681099 | 기타(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41 | 7.27 | 6810994000<br>6810992000<br>6810993000<br>6810999000<br>6810995000<br>6810991000 | 8<br>8<br>8<br>8<br>8<br>8 |
| 420231 | 외부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 34 | 1.51 | 4202311040<br>4202311020<br>4202313000<br>4202311030<br>4202311050<br>4202311010 | 8<br>8<br>8<br>8<br>8<br>8 |
| 391310 |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 26 | 7.27 | 3913109000<br>3913102000<br>3913101000 | 6.5<br>6.5<br>6.5 |
|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으로 만든 것 | 25 | 1.14 | 7113202000<br>7113209000<br>7113203000 | 8<br>8<br>8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24.62%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기타지역 대비 매우 낮은 규모와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임

- 또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분석기간 중 대중국 무역흑자를 보인 경우가 있는 33개 품목 중 14개 품목은 식품·담배 관련 품목임

○ 동기간 수입규모는 수출 대비 매우 높은 규모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제주지역은 매년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임

- 수입품목은 수출에 비해 더욱 다양성을 보이며, 2002-2014년 기간 대중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품목은 HS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인 것은 수산업이 발달한 제주지역이기에 매우 이례적임

- 또한 제주지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품목이 수출 대비 더욱 다양함을 고려할 때, 향후 한중 FTA 발효 시 대중국 무역적자규모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규모의 전망 시, 향후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한중 FTA로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중 158개 품목이 무관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경쟁력 품목은 46개로, 중국의 대제주지역 488개 무역경쟁력 품목과 비교하여 매우 작음

- 2002-2015년 기간 제주지역 품목별 무역경쟁력의 지속성은 중국의 경우보다 낮음

- 제주지역의 품목별 무역경쟁력 지속성이 낮은 주된 이유로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품은 대체적으로 자생적인 비교우위로 인해 유발된 무역경쟁력 상승이 아닌 중국의 수요와 생산능력 변화, 기타 국가 상품의 대체 등 영향이 더욱 크다고 사료됨

· 관점을 바꾸어 중국 내 소비와 필요성의 변화에 따라 제주지역이 적절히 대응하여

수출품목이 다양해진다고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국 수출품목이 비교적 일부 품목에 집중된 점, 시장비교우위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지속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소비변화에 의해 야기된 결과라 사료됨

○ 2009-2015년 기간 "광수와 탄산수, 기타 과자류, 감귤류과실, 기타 음료" 품목은 지속적으로 대중국 무역경쟁력을 보임

- 게다가 2013-2015년 기간 "기타음료, 기타화장품, 기타녹차, 기타초콜릿조제식품, 기타냉동어류, 기타식물성액, 기타조제식품, 기타음료, 기타베이커리제품" 은 2009-2015년 기간 시장비교우위지수 평균값 대비 증가함

- 제주지역 품목별 무역경쟁력 수준은 대중국 무역수지와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

· 따라서 제주지역은 품목별 무역경쟁력, 즉 비교우위수준을 향상 시켜 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한중 FTA 발효 시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품 중 6개 HS 8단위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 의 양허유형에 해당됨

- 해당 HS 8단위 품목의 상위 HS 6단위 품목명으로 인삼, 기타 식물성수액,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제식품, 부분품을 들 수 있음[67]

- **"10년 관세철폐"** 품목 중 기준세율이 15%인 품목이 15개로 가장 많으며, 이중 11개에 해당하는 품목의 상위 HS 6단위 품목명은 "식용(HS121221)" 이기에 향후 10년간 식용 관련 품목은 대중국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이라 사료됨

○ 분석기간 중 품목별 무역경쟁력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2002-2015년의 전·후반 기간별 시장비교우위지수 평균값 기준 모두 무역경쟁력을 보인 16개 HS 6단위 품목에 대하여 중국양허표의 양허유형으로 분류하여, 향후 무역경쟁력 품목의 대중국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표 Ⅴ-1 참고)

- 관련 무역경쟁력 품목의 하위 분류기준이 HS 8단위 품목을 살펴보면,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해당 품목의 향후 대중국 수출확대의 기회를 살펴볼 수 있음

67) HS121120(인삼), 130219(기타 식물성 수액), 210690(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제식품), 841490(부분품)

〈표 Ⅴ-1〉 무역경쟁력 품목과 중국양허표 HS 8단위 품목

(단위: HS 8단위 코드,(기준세율:양허유형))

| HS 6단위 | 품목명 | 중국양허표 HS 8단위 품목 |
|---|---|---|
| 030199 | 기타 활어 | 03019991(10.5:10), 03019992(10.5:10), 03019993(10.5:10), 03019999(10.5:10) |
|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 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05119111(12:5), 05119119(12:10), 05119190(12:10) |
| 060290 | 기타 수목 | 06029092(10:10), 06029093(10:10), 06029094(10:10), 06029095(10:10), 06029099(10:10) |
| 070690 | 기타 식용 냉동 뿌리근 | 07069000(13:10) |
| 080520 | 만다린, 클레멘타인, 윌킹과이와 유사한 감귤류잡종 | 08052010(12:10), 08052020(12:10), 08052090(12:10) |
| 121220 | 해초류와 기타조류 | 비(非)적합* |
|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18063100(8:15) |
|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 19023010(15:10), 19023020(15:10), 19023030(15:20), 19023090(15:15) |
| 200830 | 감귤류과실 | 20083010(20:15), 20083090(20:20) |
| 210690 | 기타 조제식료품 | 21069010(35:20), 21069020(20:15), 21069030(3:0), 21069040(10:10), 21069090(20:PR-8) |
| 220110 | 광수, 탄산수(감미료나 향미 첨가 안한 것) | 22011010(20:20), 22011020(20:15) |
| 22089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 22089010(10:10), 22089020(10:10), 22089090(10:20) |
| 330510 | 샴푸 | 33051000(6.5:PR-35) |
| 39159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9159010(6.5:15), 39159090(6.5:15) |
| 540761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 함유량 이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 54076100(10:20) |
| 848079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기타 주형 | 84807900(5:0) |

자료: 한중FTA(www.fta.go.kr/cn).

참고: * 중국양허표 중 해당 HS 6단위 코드 제시 안함

○ 두 가지 기준분류[68]에 근거한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의 순위를 재분류[69]한 10개 수출유망품목을 이하와 같이 들 수 있음

- 기타냉동어류(HS 030369, HS8단위 품목수: 4, 양허유형: 10), 기타음료(220890, 2, 10),

68) 1기준:수출액, 2기준:양허유형, 3기준:시장비교우위지수(표 Ⅳ-10 참고)
1기준:양허유형, 2기준:시장비교우위지수(표 Ⅳ-11 참고)

69) $Rank = \left( \frac{Rank_{Ⅰ} + Rank_{Ⅱ}}{2} \right)$
($Rank_{Ⅰ}$ : 수출유망품목－Ⅰ의 품목별 순위, $Rank_{Ⅱ}$ : 수출유망품목－Ⅱ의 품목별 순위)

기타메리야스편물(600410, 3, 5), 식용(121221, 11, 10), 기타조제식품(210690, 1, 0[70]), 인삼(121120, 1, 0), 광수탄산수(220110, 1, 15),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 혼합물(071190, 3, 10), 에틸렌의 기타종합체(390190, 1, 15), 화장용(340111, 1, 10)을 들 수 있음

○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대중국 637개 수입품목 중 549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한중 FTA 발효 시 이들 품목에 대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또한 228개 무관세 품목 중 158개 품목은 기존세율이 유관세 품목으로, 한중 FTA 발효 후 해당 품목의 제주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됨

- 일반·민감·초민감 3개 유형 모두 포함되는 7개 품목의 선(先)·후(后) 영향을 고려할 때,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각종 조제식품" 품목들은 비교적 우선 영향을 미칠 것이 고려됨

·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중기에, "도자제품"은 후차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2. 정책제언

## 1) 한중 FTA 기회 활용

○ 제주지역은 수출촉진정책 및 제도적 방안 구축 시, 품목별 수출규모 뿐만 아니라 무역경쟁력, 한중 FTA 양허유형 등을 고려해야 함

- 만약 단순히 품목별 수출규모 및 증가율만을 고려할 시 관세율 인하 등 향후 새로운 시장 환경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음

- 과거에는 중국 수출이 있었으나, 기타 국가 수출품 혹은 중국 생산능력 향상 등 원인으로 대체된 경우 또는 해당 품목의 수출규모 감소 혹은 수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한중 FTA로 인한 재수출 기회를 탐색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제주지역의 세계 수출품목이 대중국 수출품목수보다 더욱 많을 것을 고려할 때, 기존 대세계 수출품목 중 중국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기회를 모색하여 수출 전환효과 역시 고려해야 함[71]

70) 중국양허표 중 해당 HS 8단위 코드는 21069030에 해당함

·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탐색은 제주지역에서 기존에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며, 각 품목별로 대중국 수출확대의 기회 여부에 대한 재평가 역시 필요함

### 2) 무역경쟁력 제고

○ 대중국 수출품목의 무역경쟁력 향상은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5%의 유의수준 하에서 양의 관련성을 보여, 무역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품목별 비교우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 내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라 제주지역은 중국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중 "고품질 수출저품질 수입" 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제주지역이 요소부존도가 낮음을 고려할 때, 저품질 상품에 집중된 수출은 결국 요소제약에 직면 및 지속성이 낮으며, 경쟁 중 기타품목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임

### 3) 기업 교육 및 홍보

○ 한중 FTA 발효 후 품목별 수출확대에 대한 기회를 모든 기업에서 숙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를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형성하여 제주지역 수출기업 및 생산기업들의 중국시장 개척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72)]

- 비록 기존 제주지역 내 많은 생산기업들이 생산자본 및 역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실제 해외시장진출에 대한 진취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한중 FTA의 대중국 수출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역시 존재함

-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지역 내 판매에 대한 성향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향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새로운 경쟁 환경을 직면한다면, 제주지역 생산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 될 것임

- 그러나 만약 자기 생산품의 향후 대중국 수출 시 비용감소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향상을 예측할 수 있다면, 생산기업들의 적극성은 제고될 것임

○ 최근 [KBS 다큐 1] 중 코 속에 착용하여 미세먼지를 호흡을 방지하는 마스크를

71) 즉, 기타 국가로 수출되었던 품목이 한중 FTA 발효 후 관세절감 효과로 중국 시장 진출을 기회로 모색할 수 있음

72) 본 연구의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제주지역 내 특정기업의 관계자가 한중 FTA 발효 후 자사 생산 품목의 관세인하에 대해 자문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음을 언급함

개발한 국내 한 중소기업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특허를 획득하여,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한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기반을 다졌다고 소개함

· 그러나 중국 정부로부터 대중국 수출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측 허가기준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들 수 있음

### 4) 공정한 지원제도 구축

○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익을 어느 쪽이 더욱 확보하는가?"** 에 대해 고찰을 할 필요가 있음

- 비록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증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필요한 재화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에서 발생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음
- 하지만 필요한 재화에 대한 낮은 자급능력은 실제로 향후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품목별 무역경쟁력 수준이 무역적자 감소와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지속적인 무역경쟁력 제고와 함께 생산 중 잔후방 연계산업의 비용절감, 질적수준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그러나 대중국 수출촉진 방안은 **한중 FTA 협정문 제7장 무역구제** 중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을 고려해야 함

- 만약 지원제도가 협정 사항을 위배할 경우, 제주지역과 중국 간 무역발전을 저해할 것이기에, 제주지역은 대중국 수출 촉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방안 설립에 있어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73)]

### 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촉진 T/F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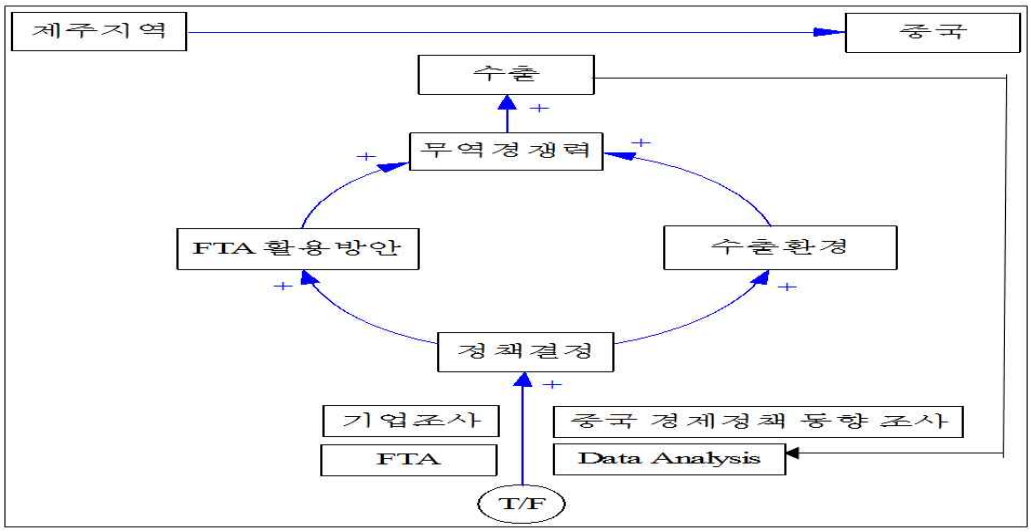
○ 이처럼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기회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수출입 품목을 분석하는 것이라 사료됨[74)]

---

73)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kor/CH_7_Trade_Remedies.pdf
비록 제주지역의 수출물량이 크지 않아, 중국측에서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적다고 고려할 수 있지만,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74)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인터넷 사이트 중 제주지역 대중국 품목별 수출입금액을 월별 데이터로 제공하며, 중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 또한 제공하므로, 기존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하여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확대의 기회 모색이 필요함

- T/F 조직은 한중 FTA 협정사항,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 분석, 수출기업 조사, 중국 정차경제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임(그림 Ⅴ-1 참고)
- 관련 기관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내 수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한중 FTA 활용방안을 교육하고 수출촉진 환경육성이 더욱 효율적이게 될 것임
- 또한 이러한 효과는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무역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촉진 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임




[그림 Ⅴ-1]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촉진 T/F 활성화 구조도

- FTA 활용 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로 예를 들자면, 원산지 규정에 부합해야만 한중 FTA의 관세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75] 제주지역 내 대중국 수출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교육시켜야함
- 게다가 대중국 수입품을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하여 중간재의 재가공 및 설비 이용 후 더욱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재수출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모색되어야 함

75) LEE외(2015) 연구는 세계경제 중 FTA 협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 복잡한 협정이 마치 마구 엉켜있는 Spaghetti와 같음을 지적하고 있음, 그의 연구 중 비록 양자 간 FTA를 체결하였어도, 기업들은 원산지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이 FTA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할 경우, 협정 이전 관세비용을 지불하며 수출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문제로 고찰을 하였음

# 참고문헌


김창범, “원/위안화 실질환율과 국제유가가 전남지역의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6호, 2012.12

김영귀, 한중 FTA 경제적 영향과 제주경제, 한중FTA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통상정책방향을 위한 세미나, 2015.8.18

천용찬, 조규림, “중국 경제의 자급률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5.07.2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015.2

한석호, “한·중 FTA 경제적 영향평가와 제주농업의 대응방안”, 한중FTA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통상정책방향을 위한 세미나, 2015.8.18

朴素,“中韩产业内贸易分析”,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2008.03

KOTRA, “부진 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14년 가공단계별·품목별 수출성과”, 2015년 2월, p.1

제주관광협회, “2015년 9월 관광객입도현황”, 2015.11.16

Sung Hee Lee, Kun Soo Park, Yong Won Seo, “The Spaghetti Bowl Effect under Different Rules of Origin across Free Trade Countries”, KETRI, 2015.11.18

민인식, 최필선, “시계열 데이터 분석 STATA”, 한국STATA학회, 2014.6

한중 FTA 부속서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http://www.fta.go.kr/cn/doc/1/

한중 FTA, 무역구제, http://www.fta.go.kr/cn/doc/1/

http://www.kita.net/

https://ko.wikipedia.org/wiki/%ED%91%9C%EC%A4%80_%EC%A0%90%EC%88%98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kor/CH_7_Trade_Remedies.pdf

http://www.kbs.co.kr/1tv/sisa/kbsdocu1/view/preview/index,1,list003,3.html?articleIndex=2

# Abstract

## The Analysis of Main Exports to China from Jeju and Corresponding Strategy

Zhong-Hua Lee, Sin Keum-Mi

Keyword : Jeju, China, FTA, Main Exports, MCAI, IITI,

As the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come to effect by the end of the year,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enter a new market environment. The new market environment will be followed by invisible opportunities and threats and require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 advance as the ripple effect will differ according to the industry, region and time.

Although the export to China from the Jeju region increased from USD 408,000 in 2002 to USD 5.725 million 2014 for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25.20%, which puts it no. 2 in terms of growth rate among 1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e figure is still very small in absolute amount. The statistics indicate that level of trade between Jeju and China is improving as the traded materials are diversifying and the intra-industry trade is also increasing.

Which will benefit more from the improvement of trade level between Jeju and China? Jeju recorded the trade deficit throughout 2002-2014, and the time series analysis indicates that the trade deficit will grow even larger.

In 2014, the Jeju region exported 46 items to China which is much fewer than 488 items exported to Jeju by China. During 2009~2015, Jeju showed the trade competitiveness in mineral water, sparkling water, cookies, tangerine, and miscellaneous drinks.

Matching of type of concession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of the Korea-China FTA with items exported by Jeju to China indicated that the export of miscellaneous processed food products, finished parts, ginseng and other miscellaneous plant sap could benefit in the short term. From trade competitiveness aspect, the export of miscellaneous frozen fish, miscellaneous drinks, edible ginseng, miscellaneous processed food products, mineral water, sparkling water and

cosmeceutical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Jeju needs to form a T/F to promote export to China to take the most of the Korea-China FTA. The T/F to promote export to China must analyze the contents of the FTA that the Jeju-based enterprises should be aware of or can take advantage of in order to seek the short-term and long-term opportunities for increasing the export to China by analyzing the import and export data of each HS unit. It must also investigate the change of Chinese economic policy and current status of enterprises in the Jeju region to identify the internal and external opportunities. Such analysis by the T/F to promote export is expected to help making of policy to promote export to China and improve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Jeju produced items to China.

# 부록

〈부록 표-1〉 중국의 대제주지역 HS 2단위 수출품목별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수

| HS 2단위 | HS 2단위 품목명 | HS 6 단위 빈도수 |
|---|---|---|
| 84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134 |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123 |
| 62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것은 제외 ) | 93 |
| 61 |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 64 |
| 90 |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53 |
| 63 |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43 |
| 73 | 철강의 제품 | 43 |
| 39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40 |
| 82 |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39 |
| 48 |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 38 |
| 96 | 잡품 | 36 |
| 94 |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 35 |
| 95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33 |
| 44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31 |
| 70 | 유리와 유리제품 | 29 |
| 87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28 |
| 40 | 고무와 그 제품 | 26 |
| 29 | 유기화학품 | 23 |
| 83 |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 23 |
| 64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22 |
| 91 | 시계와 그 부분품 | 22 |
| 42 |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 19 |
| 68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18 |
| 69 | 도자제품 | 18 |
| 0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16 |
| 07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 14 |
| 56 |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 14 |
| 92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14 |
| 25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13 |
| 58 |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 13 |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13 |
| 71 | 진주, 귀석·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 12 |
| 20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 11 |
| 57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 11 |
| 12 |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식물, 짚·사료식물 | 9 |
| 49 | 인쇄서적·신문·회화·기타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도면 | 9 |
| 32 | 유연·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 8 |
| 34 |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 8 |
| 38 |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 8 |

| | | |
|---|---|---|
| 46 | 짚·에스파르토·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 8 |
| 09 | 커피, 차, 마태, 향신료 | 7 |
| 23 |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 7 |
| 52 | 면 | 7 |
| 33 |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 6 |
| 54 | 인조장섬유 | 6 |
| 65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6 |
| 19 |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 5 |
| 21 | 각종 조제식료품 | 5 |
| 27 |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 5 |
| 28 |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 5 |
| 59 |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 5 |
| 66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5 |
| 67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5 |
| 74 | 동과 그 제품 | 5 |
| 89 | 선박과 수상구조물 | 5 |
| 15 |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 4 |
| 55 | 인조단섬유 | 4 |
| 06 |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 3 |
| 08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3 |
| 10 | 곡물 | 3 |
| 11 |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 3 |
| 17 | 당류와 설탕과자 | 3 |
| 22 | 음료, 알코올, 식초 | 3 |
| 30 | 의료용품 | 3 |
| 31 | 비료 | 3 |
| 01 | 산동물 | 2 |
| 05 | 기타 동물성생산품 | 2 |
| 14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 2 |
| 35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 | 2 |
| 53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2 |
| 72 | 철강 | 2 |
| 93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 |
| 97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2 |
| 13 |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 1 |
| 37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1 |
| 45 | 코르크와 그 제품 | 1 |
| 50 | 견 | 1 |
| 51 |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1 |
| 75 | 니켈과 그 제품 | 1 |
| 80 | 주석과 그 제품 | 1 |
| 81 |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1 |
| 86 |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 1 |
| 88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1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5.

## <부록 표-2>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유망품목-Ⅰ

| HS 6단위 | 품목명 | 수출액(달러) | MCAI | HS 8단위 | 양허유형 |
|---|---|---|---|---|---|
| 330499 | 기타 | 1,672,604 | 298.24 | 33049900 | PR-20 |
| 390190 | 에틸렌의 기타 중합체 | 813,731 | 57.63 | 39019010 | 15 |
| | | | | 39019020 | E |
| | | | | 39019090 | PR-35 |
| 030389 | 기타 | 651,646 | 434.98 | 03038920 | 10 |
| | | | | 03038910 | 10 |
| | | | | 03038930 | 10 |
| | | | | 03038990 | 15 |
| 220110 | 광수, 탄산수 | 321,683 | 3,396.15 | 22011020 | 15 |
| | | | | 22011010 | 20 |
| 220890 | 기타 | 239,740 | 1,200.10 | 22089020 | 10 |
| | | | | 22089010 | 10 |
| | | | | 22089090 | 20 |
| 121221 | 식용 | 201,322 | 383.10 | 12122142 | 10 |
| | | | | 12122190 | 10 |
| | | | | 12122149 | 10 |
| | | | | 12122171 | 10 |
| | | | | 12122161 | 10 |
| | | | | 12122169 | 10 |
| | | | | 12122179 | 10 |
| | | | | 12122132 | 10 |
| | | | | 12122131 | 10 |
| | | | | 12122141 | 10 |
| | | | | 12122139 | 10 |
| | | | | 12122110 | 15 |
| | | | | 12122120 | 15 |
| 600410 | 탄성사의 함유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 116,554 | 79.93 | 60041090 | 5 |
| | | | | 60041020 | 5 |
| | | | | 60041010 | 5 |
| | | | | 60041040 | 15 |
| | | | | 60041030 | 20 |
| 200830 | 감귤류과실 | 87,792 | 688.01 | 20083010 | 15 |
| | | | | 20083090 | 20 |
| 732393 | 스테인레스 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품 | 83,334 | 325.61 | 73239300 | 10 |
| 160300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 과즙 | 79,240 | 36,031.20 | 16030000 | 20 |
|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61,050 | 227.99 | 18063100 | 15 |
| 600192 | 인조섬유제의 기타 파일편물 | 53,776 | 120.24 | 60019200 | 20 |
| 1806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 52,562 | 451.28 | 18063200 | 15 |
| 210690 | 기타 | 51,482 | 17.47 | 21069030 | 0 |
| | | | | 21069040 | 10 |
| | | | | 21069020 | 15 |
| | | | | 21069010 | 20 |
| | | | | 21069090 | PR-8 |
| 340111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 44,652 | 411.19 | 34011100 | 10 |
| 330430 | 매니큐어용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 40,928 | 1,145.13 | 33043000 | E |
| 121120 | 인삼 | 40,658 | 315.02 | 12112010 | 0 |
| | | | | 12112020 | 15 |
| | | | | 12112091 | 15 |
| | | | | 12112099 | E |

| | | | | | |
|---|---|---|---|---|---|
| 900311 | 안경·고글 또는 유사물품의 테와 장착구 | 37,236 | 184.11 | 90031100 | 10 |
|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35,700 | 7,157.69 | 07119031 | 10 |
| | | | | 07119039 | 10 |
| | | | | 07119034 | 10 |
| | | | | 07119090 | 10 |
| 841410 | 진공펌프 | 27,482 | 17.82 | 84141000 | 10 |
| 381400 | 유기혼합용제와시너, 조제한 페인트·바니시 제거제 | 22,100 | 66.25 | 38140000 | 20 |
| 551622 | 염색한 것 | 21,192 | 429.30 | 55162200 | 15 |
| 330510 | 샴푸 | 19,500 | 108.05 | 33051000 | PR-35 |
| 491191 | 서화·디자인·사진 | 18,000 | 299.56 | 49119100 | 15 |
| 180620 | 그 밖의 조제식료품[76] | 16,617 | 154.35 | 18062000 | 10 |
| 040900 | 천연꿀 | 14,135 | 82.73 | 04090000 | 15 |
| 090220 | 기타 녹차(미발효차) | 13,500 | 803.78 | 09022090 | 10 |
| | | | | 09022010 | 10 |
| 170490 | 기타 | 9,429 | 25.85 | 17049000 | 20 |
| 190590 | 기타 | 7,442 | 12.38 | 19059000 | 20 |
|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6,891 | 120.82 | 05119111 | 5 |
| | | | | 05119119 | 10 |
| | | | | 05119190 | 10 |
| 340211 | 음이온성의 유기계면 활성제 | 6,120 | 15.11 | 34021100 | PR-35 |
| 600532 | 염색한 것 | 4,313 | 9.92 | 60053200 | 20 |
| 600644 | 날염한 것 | 4,264 | 380.60 | 60064400 | 5 |
| 481920 | 골판이외의 지와 판지제 상자류 | 3,673 | 14.57 | 48192000 | E |
| 220290 | 기타 | 3,300 | 5.57 | 22029000 | 20 |
| 621710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 3,263 | 45.21 | 62171010 | 10 |
| | | | | 62171090 | 10 |
| | | | | 62171020 | 10 |
| 294000 | 당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이들의 염 | 2,702 | 35.95 | 29400000 | 10 |
| 390599 |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기타 비닐중합체 | 2,644 | 6.87 | 39059900 | 15 |
| 130219 | 기타 | 2,575 | 18.37 | 13021930 | 0 |
| | | | | 13021920 | 0 |
| | | | | 13021910 | 15 |
| | | | | 13021990 | 15 |
| | | | | 13021940 | 15 |
| 600542 | 염색한 것 | 2,501 | 216.99 | 60054200 | 5 |
| | | | | 60064200 | 15 |
| 580410 | 튈과 그 밖의 망직물 | 1,459 | 5.36 | 58041010 | 5 |
| | | | | 58041020 | 5 |
| | | | | 58041090 | 5 |
| | | | | 58041030 | 20 |
| 030331 | 냉동넙치 | 786 | 2.95 | 03033190 | 10 |
| | | | | 03033110 | 10 |
| 621410 | 견·견웨이스트의 쇼올, 스카아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 500 | 3.64 | 62141000 | 10 |
| 051199 | 기타 | 350 | 8.36 | 05119990 | 10 |
| | | | | 05119940 | 1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76)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모양·슬래브모양·막대(bar)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함

## <부록 표-3>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유망품목-II

| HS 6단위 | 품목명 | HS 8단위 | 양허유형 | MCAI | 수출액 (달러) |
|---|---|---|---|---|---|
| 121120 | 인삼 | 12112010 | 0 | 315.0 | 40,658 |
| 130219 | 기타 | 13021920 | 0 | 18.4 | 2,575 |
| | | 13021930 | 0 | | |
| 210690 | 기타 | 21069030 | 0 | 17.5 | 51,482 |
| 600644 | 날염한 것 | 60064400 | 5 | 380.6 | 4,264 |
| 600542 | 염색한 것 | 60054200 | 5 | 217.0 | 2,501 |
|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05119111 | 5 | 120.8 | 6,891 |
|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 60041090 | 5 | 79.9 | 116,554 |
| | | 60041010 | 5 | | |
| | | 60041020 | 5 | | |
| 580410 |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 58041090 | 5 | 5.4 | 1,459 |
| | | 58041020 | 5 | | |
| | | 58041010 | 5 | | |
|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7119090 | 10 | 7,157.7 | 35,700 |
| | | 7119031 | 10 | | |
| | | 07119039 | 10 | | |
| | | 07119034 | 10 | | |
| 220890 | 기타 | 22089010 | 10 | 1,200.1 | 239,740 |
| | | 22089020 | 10 | | |
| 090220 | 기타 녹차(미발효차) | 09022010 | 10 | 803.8 | 13,500 |
| | | 09022090 | 10 | | |
| 030389 | 기타 | 03038920 | 10 | 435.0 | 651,646 |
| | | 03038930 | 10 | | |
| 030389 | 기타 | 03038910 | 10 | 435.0 | 651,646 |
| 340111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 34011100 | 10 | 411.2 | 44,652 |
| 121221 | 식용 | 12122149 | 10 | 383.1 | 201,322 |
| | | 12122179 | 10 | | |
| | | 12122190 | 10 | | |
| | | 12122161 | 10 | | |
| | | 12122139 | 10 | | |
| | | 12122141 | 10 | | |
| | | 12122171 | 10 | | |
| | | 12122131 | 10 | | |
| | | 12122169 | 10 | | |
| | | 12122132 | 10 | | |
| | | 12122142 | 10 | | |
| 732393 | 스테인레스 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품 | 73239300 | 10 | 325.6 | 83,334 |
| 900311 | 안경·고글 또는 유사물품의 테와 장착구(플라스틱제의 것) | 90031100 | 10 | 184.1 | 37,236 |
| 180620 | 그 밖의 조제식료품 | 18062000 | 10 | 154.3 | 16,617 |
|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밖의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05119190 | 10 | 120.8 | 6,891 |
| | | 5119119 | 10 | | |
| 621710 | 기타의 제품으로된 의류부속품(직물제) | 62171010 | 10 | 45.2 | 3,263 |
| | | 62171090 | 10 | | |
| 621710 | 기타의 제품으로된 의류부속품(직물제) | 62171020 | 10 | 45.2 | 3,263 |
| 294000 | 당류(화학적으로순수한것으로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 29400000 | 10 | 35.9 | 2,702 |
| 841410 | 진공펌프 | 84141000 | 10 | 17.8 | 27,482 |
| 210690 | 기타 | 21069040 | 10 | 17.5 | 51,482 |

| | | | | | |
|---|---|---|---|---|---|
| 051199 | 기타 | 5119940 | 10 | 8.4 | 350 |
| | | 5119990 | 10 | | |
| 621410 | 견·견웨이스트의 쇼올, 스카아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직물제) | 62141000 | 10 | 3.6 | 500 |
| 030331 | 냉동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 3033110 | 10 | 3.0 | 786 |
| 030331 | 냉동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 3033190 | 10 | 3.0 | 786 |
| 220110 | 광수,탄산수(감미료나 향미 첨가 안한 것) | 22011020 | 15 | 3,396.2 | 321,683 |
| 200830 | 감귤류과실 | 20083010 | 15 | 688.0 | 87,792 |
| 1806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 18063200 | 15 | 451.3 | 52,562 |
| 030389 | 기타 | 3038990 | 15 | 435.0 | 651,646 |
| 551622 | 염색한 것 | 55162200 | 15 | 429.3 | 21,192 |
| 121221 | 식용 | 12122110 | 15 | 383.1 | 201,322 |
| | | 12122120 | 15 | | |
| 121120 | 인삼 | 12112020 | 15 | 315.0 | 40,658 |
| | | 12112091 | 15 | | |
| 491191 | 서화·디자인·사진 | 49119100 | 15 | 299.6 | 18,000 |
|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18063100 | 15 | 228.0 | 61,050 |
| 040900 | 천연꿀 | 4090000 | 15 | 82.7 | 14,135 |
|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 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 60041040 | 15 | 79.9 | 116,554 |
| 390190 | 에틸렌의 기타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 39019010 | 15 | 57.6 | 813,731 |
| 600642 | 염색한 것 | 60064200 | 15 | 23.1 | 2,443 |
| 130219 | 기타 | 13021990 | 15 | 18.4 | 2,575 |
| | | 13021940 | 15 | | |
| 130219 | 기타 | 13021910 | 15 | 18.4 | 2,575 |
| 210690 | 기타 | 21069020 | 15 | 17.5 | 51,482 |
| 390599 |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기타 비닐중합체 | 39059900 | 15 | 6.9 | 2,644 |
| 160300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 과즙 | 16030000 | 20 | 36,031.2 | 79,2400 |
| 220110 | 광수, 탄산수(감미료나 향미 첨가안한 것) | 22011010 | 20 | 3,396.2 | 321,683 |
| 220890 | 기타 | 22089090 | 20 | 1,200.1 | 239,740 |
| 200830 | 감귤류과실 | 20083090 | 20 | 688.0 | 87,792 |
| 600192 | 인조섬유제의 기타 파일편물 | 60019200 | 20 | 120.2 | 53,776 |
|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 60041030 | 20 | 79.9 | 116,554 |
| 381400 | 유기혼합용 제와시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 제거제 | 38140000 | 20 | 66.3 | 22,100 |
| 170490 | 기타 | 17049000 | 20 | 25.8 | 9,429 |
| 210690 | 기타 | 21069010 | 20 | 17.5 | 51,482 |
| 190590 | 기타 | 19059000 | 20 | 12.4 | 7,442 |
| 600532 | 염색한것 | 60053200 | 20 | 9.9 | 4,313 |
| 220290 | 기타 | 22029000 | 20 | 5.6 | 3,300 |
| 580410 |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 58041030 | 20 | 5.4 | 1,459 |
| 330430 | 매니큐어용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 33043000 | E | 1,145.1 | 40,928 |
| 121120 | 인삼 | 12112099 | E | 315.0 | 40,658 |
| 390190 | 에틸렌의 기타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 39019020 | E | 57.6 | 813,731 |
| 481920 | 골판이외의 지와 판지제 상자류 | 48192000 | E | 14.6 | 3,673 |
| 330499 | 기타 | 33049900 | PR-20 | 298.2 | 1,672,604 |
| 330510 | 샴푸 | 33051000 | PR-35 | 108.1 | 19,500 |
| 390190 | 에틸렌의 기타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 39019090 | PR-35 | 57.6 | 813,731 |
| 340211 | 음이온성의 유기계면 활성제 | 34021100 | PR-35 | 15.1 | 6,120 |
| 210690 | 기타 | 21069090 | PR-8 | 17.5 | 51,482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데이터, 한중FTA(www.fta.go.kr/cn).

##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중 화**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신 금 미** 원광대학교 교수



기본연구 2015-16


# 제주지역 대중국 주요 수출산업 분석 및 대응방안


발행인 ‖ 강 기 춘

발행일 ‖ 2015년 11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오라2동 44-1번지

전화 : (064) 726-0500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di.re.kr

인쇄처 ‖ 디자인오투

ISBN : 978-89-6010-448-8 933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